

開化期の地理教育

張 保 雄

序 論	三. 開化期の 各種地理教科用 圖書
一. 近代 地理教育의 胎動	1. 韓國地誌 教科用 圖書
二. 甲午更張 以後의 地理教育	2. 萬國地誌 教科用 圖書
1. 各級學校의 地理教育課程	結 論
2. 地理教科用 圖書 編纂	

序 論

開化期에 대한 明確한 時代의 限定에는 아직 問題點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前近代의인 社會에서 近代的인 社會로 넘어오는 過渡期를 開化期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에서는 19世紀 後半부터 많은 先進 外國文化가 들어왔고 海外에 대한 知識이 보급되어서, 前近代의인 在來의 것과 다른 文化가 形成되는 時期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時期에 새로운 地理知識과 새로운 見聞이 쏟아져 들어왔고, 또 近代 各級 學校가 創設되었으며 近代學校에서 近代地理教育이 行하여졌다.

本 研究에서는 韓國 地理教育史에서 중요한 時期인 開化期의 地理教育을 甲午更張을 중심으로 整理를 試圖하였다. 즉 甲午更張 전에는 近代的인 地理學과 地理教育이 어떻게 導入되었으며, 甲午更張 이후는 各級 近代 學校의 地理教育 內容은 어떠하였으며, 어떻게 變遷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當時 各級 學校에서 사용한 地理教科用 圖書는 어떻게 編纂되었고, 또 檢定 認可의 절차는 어떠하였으며, 그 內容은 무엇이며 著·譯·編者는 參考文獻으로 무엇을 이용하였는가를 考察하였다.

筆者가 平素에 수집한 舊韓末의 各種 地理 教科用 圖書와 舊韓國政府에서 發行한 官報, 韓國教育史 關係의 各種文獻, 그리고 日本人들의 著編으로 發行된 韓國地誌 關係의 各種 文獻을 參考로 하였다.

一. 近代地理教育의 胎動(1883—1894)

近代 學校에서 本格的인 地理教育을 實施하기 以前에 近代的인 地理學이 어떻게 導入되었고 이로 인

하여 近代 地理教育이 어떻게 胎動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韓國 最初의 近代 新聞인 「漢城旬報」의 發行 年度인 1883년부터 育英公院을 廢하는 1894년까지의 期間에서 史的 考察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漢城旬報, 漢城周報를 통한 地理知識의 普及
1883年 10月에 創刊된 韓國 最初의 近代 新聞인 漢城旬報와 1886年 1月에 創刊된 漢城周報는 新聞史에서뿐만 아니라 開化運動史에서도 중요한 研究對象이 된다¹⁾. 또한 開化運動의 한 方法으로 新聞을 通하여 國民에게 世界情勢를 알리고 先進國家의 政治·經濟·文化制度를 紹介하고 科學知識과 近代 地理 知識을 普及코자 努力하였다. 1881年 12月에 渡日한 金玉均이 主動이 되어 朴泳孝·閔泳翊 등과 함께 다음해인 1882年에 日本의 民衆教育의 先覺者인 福澤諭吉과 만나 開化 文明과 國家改革에 대한 意見을 교환하였다. 金玉均, 朴泳孝等의 開化派들은 젊은 青年을 日本에 유학시켜서 指導者를 양성하는 동시에 國內 民衆을 계몽하는 수단으로 新聞을 創刊할 것과 軍隊를 新式으로 改編하여 富國強兵의 政策等을 꾀하였다²⁾.

朴泳孝는 歸國하여 新聞創刊에 着手하였다. 이때 福澤諭吉의 추천으로 牛場卓藏, 高橋正信 두 記者와 隨行員으로 井上角五郎 그리고 活版工을 비롯한 機械·鑄造工 등이 漢城에 나타나 南部 亭洞의 博文局舍에 新聞創刊 準備를 서둘렀다. 이렇게 해서 韓國 最初의 近代式 新聞인 「漢城旬報」가 1883年(癸未) 陰 10月 1日에 統理衙門 博文局에서 創刊되었다. 이 新聞은 旬報로 每月10日 隔三回 發行되었으며 純漢文으로 記載되었다. 新聞의 모양을 보면

1) 李光麟: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에 대한 一考察” 韓國開化史研究, 1969, P. 48

2) 崔 竣: 韓國新聞史, 1960, PP. 13~15

세로 25cm, 가로 9cm 크기에 面數는 18面을 기준으로 일정치 않다.

編輯內容은 第一面에 旬報序, 다음에 內國記事·雜記瑣聞·各國近事, 그리고 當時로서는 새로운 學問인 地理에 關한 學術的인 內容을 記載하였다.

漢城旬報 第1號에서 第14號까지에 民衆을 啓發 開化하기 위하여 실린 地理學에 關해 紹介된 것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第1號：地球圖說—地球全圖(13~14面)

地球論(14—15面) 論洲洋(15~17面)

第2號：論地球運轉(15~17面) 歐羅巴洲(17~20)

第3號：亞米利加洲(14~15面)

第4號：亞非利駕洲(13~15面)

第5號：阿西亞尼亞洲(22~24面)

第6號：英國地略(18~23面)

第10號：地球圖日圖鮮(18~23面)

第11號：俄國疆域記(24面)

第12號：地球圖日, 成歲序圖說(18~20面)

美國誌略(21~24面)

第14號：亞細亞洲總論(11~12面) 美國誌略續稿(23~24面)

1884年 12月 4日(陰 10月 17日) 甲申政變에서 開化派가 실패하자 政權을 잡은 守舊派들은 學洞의 博文局을 습격하여 本을 질러 局舍와 기계·활자 등을 재로 만들었고, 따라서 漢城旬報도 사라졌다.

1885年 1月에 來韓한 井上角五郎은 前 博文局 직원과 함께 漢城旬報의 復刊을 圖을 일으켰는데 이때 新聞復刊에 關心을 가진 金允植 外衙門協辦의 주선으로 高宗의 允許를 얻고 종래의 旬刊을 週刊으로 하고 題號도 「漢城周報」로 고쳐서 1886年 1月에 最初의 國漢文 新聞을 發刊하였다³⁾.

內容은 國內記事·外報·法報節錄·集錄 등으로 되었다. 集錄面에 民衆의 開化에 도움이 되는 地理에 關한 記事를 많이 실었다. 一部 內容을 引用하던 다음과 같다.

地理初歩 第7章

“地球各處에 반다시 寒熱에 差異가 있는 故로 地理學은 者分爲 五호니 曰熱帶요 曰北溫帶요 曰南溫帶요 曰北寒帶요 曰南寒帶是也 然熱帶는 赤道로 中央을 爲 南至冬至線호 北至夏至線이니 日光이 尙상 其地를 直射하는 故로 甚熱호 야周歲에 不見 水雪호 草木禽獸가 繁茂호 미 且 日光이 直射北緯二十三

度三十分而此時에 北緯各地는 夏至가 되고 南緯各地는 冬至가 되는 故로 地理學者稱호 北緯二十三度三十分을 夏至線이라 호 느니라”(第28號 PP. 15~16)

上記 兩新聞은 韓國最初의 新聞인 동시에 메스미디아를 통해서 國民들에게 과학적인 地理知識을 보급하려고 노력하였다. 舊韓末에 西歐文化가 쏟아져 들어올 때, 신문을 통한 地理知識의 보급은 近代의 地理教育에 先行되는 매우 의의 있는 일이었다.

2. 初期 宣敎系學校와 地理教育

처음 韓國의 宣敎系 學校는 모두 宣敎事業의 基礎工作 또는 그 附帶 活動의 하나로 始作되었던 만큼 이들 學校의 教育目的이 基督敎의 人物을 기르는 동시에 宣敎의 助力者가 될 수 있는 指導者를 양성하는 데 있었다⁴⁾. 韓國에서 外國人이 最初로 設立한 近代의 私學인 培材學堂과 地理教育을 살펴보자. 本 學堂은 1885年 7月 19日에 美國 北監理敎宣敎部에서 세운 것이고 그 使命을 달하 일한 宣敎師가 H. G. Appenzeller 었다.

教育을 시작하여 15개월 동안은 英語와 萬國歷史를 가르치고 1886年 11月 1日에 서양식의 벽돌 積 큰 校舍를 짓고 學科日도 대폭적으로 擴張했다. 성경·영어독본·한문·영어문법·수학·지리·만국역사·기하·화학·물리·창가·도화·제조·위생·생리 등의 學科목을 敎수하였다⁵⁾. 그때의 學生이 다면 漢文學을 10年 혹은 15年씩 入學前에 修學하였다. 따라서 그들에게 新敎育의 課程을 어떻게 출발시키며 그 표준을 어떻게 잡는가 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였다. 그리하여 우선 普通科와 萬國地誌科를 설치하고 主로 漢文과 英語, 萬國地誌를 가르치었으니 오늘의 中학교 程度의 學科를 敎수하였다⁶⁾. 周時經氏의 履歷書에 光武元年六月에 培材學堂 萬國地誌 特別科 卒業이라는 記錄⁷⁾이 있다. 이로 地理教育을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독립신문」⁸⁾ 잡보단에 “독립 신문사장이 일주일간 목요일 오후 삼시에 비치 학당에 가서 만국 지리와 다른 학문상 일을 학도들의게 연설 한다더라”라는 기록이 있다. 위의 독립신문사장은 徐載弼博士를 말한다. H. B. Hulbert 도 한때 培材學堂에서 地理를 강의하였다.

培材學堂에서 初創期부터 學生들의 視野를 넓히고, 계몽시키고 開化시키기 위하여 地理教育을 실

3) 崔 堉：前揭書 PP. 24~26

5) 培材中高等學校：培材史, 1955. p. 60

7) 培材中高等學校：前揭書. p. 148

4) 吳天錫：韓國教育史, 1964. p. 66

6) 培材中高等學校：培材八〇年史, 1965. p. 147

8) 독립신문：建陽元年 5月 23日 제1권 21호 잡보.

사하였고, 萬國地誌 特別科까지 設置하였었다. 그리고 本學堂에서 使用한 地理教科書 中的 하나가 H. B. Hulbert 著의 「스민필지」였다. 따라서 培材學堂은 最初의 近代의 私學인 동시에 地理教育을 통하여 近代地理知識의 普及에 공헌한 바 크다.

3. 育英公院과 「스민필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韓國에서 最初의 近代學校는 1885년에 設立된 培材學堂이다. 育英公院은 한 해 뒤인 1886년에 舊韓國政府에서 새운 特殊學校였다. 政府에서는 1884년에 젊은 教師 세 사람을 求하여 主君 美國公使에게 請하였고⁹⁾ 그 結果 1886년에 美國政府의 推薦으로 新學問의 教師 3名이 來韓하게 되었으니 G. W. Gilmore 와 D. A. Bunker, H. B. Hulbert 가 그들이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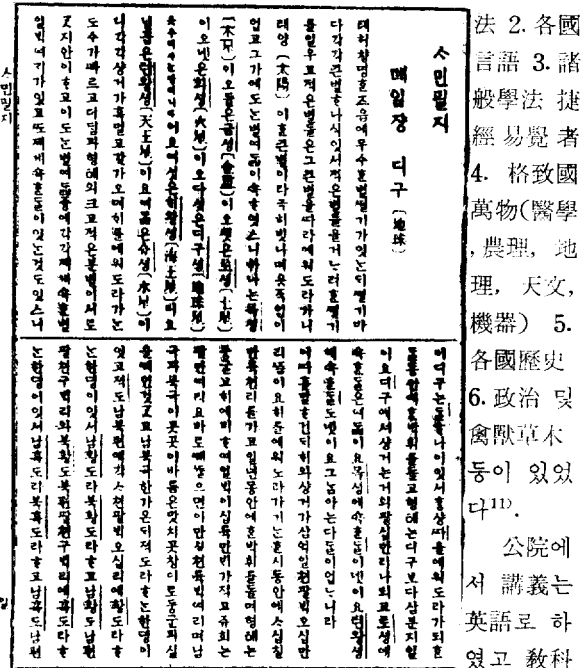
育英公院에서 教育하던 教材 內容을 보면 「學習次第」라 하여 1. 讀書 2. 習字 3. 學解字法 4. 算學 5. 寫所習算法 6. 地理 7. 學文法이 있었고, 이러한 初學을 卒業한 後에는 「所學諸條」라 하여 大算

纂된 것이 Hulbert 의 「스민필지」이다. (第1圖) 本書는 學校에서 使用된 最初의 地理教科用圖書이다. Hulbert 는 모든 사람에게 빨리 읽히고 알리기 위하여 國문으로 썼다고 했다¹²⁾. 外國人으로서 各國에 관한 知識을, 더우기 専門성을 띤 地理的인 內容을 歪曲되지 않게 著述하여 外部와 접촉이 없었던 學生과 市民에게 읽혔다는 것은 당시로선 매우 의의가 큰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Hulbert 자신이 著述하였다고 하나 Hulbert 는 宣教師·教育者·出版·歷史學·言語學의 研究에 많이 알려졌던 점으로 보아 순수한 自作이라기보다는 당시 미국에서 사용되던 어느 地理教科書를 韓國을 中心으로 한 內容으로 이해하기 쉽게 편찬하여 우리말로 옮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스민필지」의 初版本이 언제 출판되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C. N. Weems 는 根據를 제시하지 않고 1889年¹³⁾이라 말하고, 李光麟教授는 1891年前¹⁴⁾이라 추정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1889年에서 1891年 사이가 아닌가 한다. 즉 培材學堂에서 1889年 1月 4日 中國에서 宣敎하고 있던 울링거(Rev. F. Ohlinger)박사를 초빙하여 培材學堂에 있는 활판소(印刷所)를 관리하게 하였고, 영문활자와 한글활자를 주조하여 성서를 인쇄하였고 教材를 인쇄하였다¹⁵⁾는 기록이 있고, Hulbert 는 育英公院을 1891년에 사임하였으므로 1889~1891年 사이로 추정하는 것이다.

「스민필지」의 體制를 살펴보면 初版本은 161面, 29.8×22.2cm, 縱行一段이고 再版(1906)과 3版(1909)은 134面, 26×18.5cm, 縱行2段으로 되었다. 初版本 「스민필지」를 臺本으로 해서 叢政府 編史局 主事 金澤柔이 撰하고 李明翔과 白南奎의 共同譯으로 1895년에 「土民必知」라는 純漢文體의 冊이 나왔다. 體制는 71張(142p), 28×18.5cm 이다. 學部에서는 初創期 各級學校 設立時에 漢譯本 「土民必知」를 教科用圖書로 使用하였다. 그리고 一部 私立學校에서 教科用圖書로 使用하려고 學部에 認可를 求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理由¹⁶⁾로 不認可되었다. 즉 教材로서 內容이 오래 되었다는 것이다.



第1圖 힐버트의 스민필지

로 된 것을 採用하였다. 이때 地理科用 教科書로 編

9) 李光麟：“育英公院設置와 그 變遷에 대하여” 東方學志 第6號, 1963

10) 李瑄根：韓國史(最近世編). 乙酉文化史 1961. pp. 920~921

11) 李瑄根：前揭書

12) Hulbert: “스민필지” 서문. Vol I. New York. 1962. pp. 32~62

13) C. N. Weems: “Profile of H.B. Hulbert” Hulbert’s History of Korea. Vol I. New York, 1962. pp. 32~62

14) 李光麟：韓國開化史研究. 1969. P. 106. 註 94)

15) 培材中等學校：前揭書 1965. P. 217

16) 本書ハ教科書トシテ不適當ト認ム. 理由—本書ハ十三年前即チ開國五百四年 英人絶法著 스민필지概要ヲ編譯シタルモノナルガ原書ハ三版ヲ 重ネテ 尙ホ教材 古キ嫌アリ. 況ヤ 本書, 教材 古キコトラ 推知スベン—國立圖書館所藏土民必知付箋紙

“스민필저”의 目次와 內容은 다음과 같다. 메일장 지구(地球), 메일장 유로바주(歐羅巴洲), 메일장 아시아주(亞細亞洲), 메일장 아메리카주(亞美利加洲), 메일장 아프리카주(亞弗利加洲)·오스트렐냐주(大洋洲) 등의 目次가 있다. 각 장마다 洲全圖가 실려 있다. 內容은 “지구편”에서 太陽系·地球의 位置·氣候·引力·日月食·大陸과 海洋·人種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일부를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비는 영김질이 구름인즉 써든디다가 미우치운덕을 만나면 물이 되느니 큰 산속은 더치운지라 그러므로 구름이 큰산을 지나면 물이 되고 물은 거운보다 무거우니 무거운 것은 느린지라 이 느린 물은 넓은바 비니라”

(「스민필저」三版 메일장 지구 P. 3)

各國의 地誌를 位置·地形·氣候·産業·人口(住民)·國體·都城·通商·教育·宗教·뜻노말 등의 順序로 記述하고 있다. 美國에 관한 內容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디정을 말하건터 북은 캐나다 사이오 동은 대서양이오 남은 멕시코국과 멕시코만이오 서는 태평양이며 디방을 말하건터 스면 십리되는 방면이 스십만이며 디형을 말하건터 서에 라키산이오 히변에 가스켓과 시에라네바다란 큰 산이 있고 동편에 아블나지안과 불누크지와 알크게너지와 알크게너와 그린이란 산이었고 또 동편에 쾨니디컷과 헛슨과 보도막과 사바니란 강이 대서양으로 드러가고 혼가운터 미시시피란 강이 멕시코하수로 드러가고……”

(「스민필저」三版 메일장 아메리카주 합중국 p. 89)

“一曰美國北亞墨利加之地本野著衆部明 中世西班牙始滿之其後爲英所有清乾隆四十年 別部人華盛頓始立國合衆國者本衆部落自華盛頓統合爲一因以爲今名今天下最號富饒其財額大槩六萬七千百萬圓……”(「土民必知」合衆國 47張)

初版本의 “스민필저”는 1906年의 再版에서 많은 修正이 加해졌다. 수정된 부분 몇 곳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디그리(degree)→도, 인구(유럽의 인구; 삼백이십팔백만→삼억구천칠백이십만), 조선→대한국, 천체도가 삭제되고 대한전도가 첨가됨, 뜻노말이 첨가됨. 初版에는 天體圖·各洲地圖 등 10個의 黑白地圖가 실려 있으나 再版에서는 9個의 色地圖(5色)가 있음.

스민필저는 당시의 학생과 일반 국민에게 비교적 정확한 世界地理 知識을 알려 주었고 國民의 耳目을 國外로 向하게 하고 國際間에 理解를 돕는데 큰

役割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地理教科用 圖書로서 묻는 말이 있고 地圖가 삽입되었다는 것은 後日 地理教科書 編纂에 좋은 示範을 보여 주었다고 하겠다.

三. 甲午更張 以後의 地理教育(1895~1910)

1. 各級學校의 地理 教育課程

(1) 師範學校와 地理教育課程

漢城師範學校는 舊 韓國政府에서 設立한 最初의 近代 學校이다. 漢城師範學校 官制¹⁷⁾가 開國504年(1895) 4月 16日에, 漢城師範學校 規則¹⁸⁾이 同年 7月 23日에 公布되었다. 官制에 의하면 本科와 速成科의 二科를 두었고 修業 年限은 本科가 2年(光武 3年(1899)에 4年으로 改正), 速成科는 6個月 이다.

光武 10年(1906)에는 普通學校의 확장에 따라 敎員養成을 위한 機關으로서 師範學校令¹⁹⁾及 同 施行規則²⁰⁾을 公布하고 師範學校의 整備에 힘을 기울였다. 師範學校令에 의하면 本科, 豫科, 速成科, 講習科를 두었고 修業 年限은 本科 3年, 豫科, 速成科, 講習科는 각 1年 以內로 되었다.

學年別 地理教科 內容과 週當時數²¹⁾는 다음과 같다.

本科—週當時數: 34時間中 地理는 2時間

第 1 學年: 本國地理 及 地圖描法 2時間

第 2 學年: 外國地理 及 地圖描法 2時間

第 3 學年: 前學年の 續 及 地文의 大要 2時間

豫科—週當時數 32時間中 地理·歷史는 3時間

地理·歷史: 本國의 地理·歷史

速成科—週當時數 34時間中 地理·歷史는 3時間

地理·歷史: 本國 及 外國地理·歷史의 大要

開國 504年(1895)부터 合邦 直前까지 師範學校의 地理教育課程의 改正은 두번 있었다.

漢城師範學校 規則 第11條에 13個의 學科目과 程度를 規定하고 있으며 “地理는 本國及 萬國의 政治地理와 地文의 初步”라 되어 있다. 初創期의 教育課程은 具體的인 것이 되지 못 하였다. 當時의 政治地理라 함은 地誌와 別차가 없었고, 地文이라 함은 自然地理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光武 10年(1906)에 公布된 師範學校令 施行規則 第6條에 16個의 學科目과 要旨를 定하고 있으며 地理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地理는 人生에 適當한 事項을 知게 爲는 爲主하고 外

17) 官報: 開國 504年 4月 16日 勅令 第79號

18) 官報: 開國 504年 7月 23日 學部令 第1號

19) 官報: 光武 10年 8月 27日 勅令 第41號

20) 官報: 光武 10年 8月 27日 學部令 第20號

21) 前掲官報: 師範學校 施行規則 第7條 第1, 2, 3號表

國地理를 教授하라면 本邦과 重要 關係가 有한 諸外國의 地理를 尤極 詳明케 하고 其他 地理는 簡略히 하고 地文은 本邦 事實을 由하야 教授함이니라”

이 때는 벌써 乙巳條約 締結 다음해다 日人들은 韓國에 統監府를 設置하고 韓國을 日本의 植民地로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고 실제적으로 한국정부에 日人들이 간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民族的 意識과 覺醒을 喚起시키는 地理와 歷史教育은 形式的으로 要式만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教育課程의 內容이 抽象的이고 韓國地理에 관한 言及이 없다.

隆熙 3年(1909)에 師範學校令 施行規則을 改正하여 公布²²⁾하였다. 同 施行規則 第5條 6項에 地理課程을, 다음과 같이 定하고 있다.

“地理는 地球의 形狀 運動과 并히 地球表面 及 人類生活의 狀態를 理會케 하며 我國 及 諸外國의 國勢를 知케 하며 且 普通學校의 地理 教授 하는 方法을 會得케 함으로써 要旨로 함. 地理는 本國 地理와 并히 我國과 重要한 關係가 有한 諸外國의 地理大要를 教授하며 且 地圖의 描法과 地文 一斑을 教授함이 可함”

여기서는 比較的 具體的으로 體系를 갖추어서, 또 師範教育의 特性을 살려서 記述하고 있으나 地理教育의 重要 目標의 하나인 愛國 愛郷하는 精神을 기르는 面에는 全然 言及이 없다.

(2) 小學校와 地理 教育課程

舊 韓國政府에서 開國 504年(1895) 小學校令²³⁾을 公布하고 8月부터 開校한다는 廣告²⁴⁾를 계속해서 官報에 냈다. 그러나 當時의 保守的인 社會는 新學問과 近代學校에 關한 理解가 적었기 때문에 生徒 募集이 充足치 못하였다. 學部大臣 徐光範의 名義로 學生 增募하는 告示²⁵⁾를 여러번 官報에 發表하였다. 告示內容의 一部는 다음과 같다.

“告示：……(前略) 學徒를 八歲 以上으로 十五歲 以下 增集하야 其 課程은 五倫行實로부터 小學과 本國 歷史와 地志와 國文과 其他外國歷史와 地志 等 時宜에 適當한 書冊을 一切 教授하야 虛文을 祛하고 實用을 尙하야 教育을 務盡케 하노니 夫 外國學校에 規程을 第念컨디 兒童이 學校에 入學치 아니하는 者는 其 父兄을 罰 하는 例도 或 有한지라 本國에는 此項 規程을 아주 說學치 못하엿스……”

위의 告示에서 學齡, 教科目 등을 알 수 있고 당시의 先進國에서 실시하던 의무교육제도를 장차 실시

할것을 예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小學校令에 의하면 小學校를 官立·公立·私立의 三種으로 나누었고, 官立은 國庫, 公立은 府 或은 郡, 私立은 私人的 부담으로 되었다. 또 小學校를 尋常·高等의 2科로 나누고 修業年限은 尋常科 3年, 高等科 2年 또는 3年으로 되었다.

光武 10年(1906) 普通學校令²⁶⁾과 同施行規則²⁷⁾을 公布하였고 1895년에 公布된 小學校令과 이에 關된 諸 法規는 廢止되었다. 普通學校를 官立·公立·私立 三種으로 나누었고, 尋常·高等 2科로 하였는 것을 하나로 統合하고 修業年限을 4年, 學年을 3期로 하였다.

小學校 및 普通學校의 地理 教育課程의 修正은 1895年 以來 韓日合邦까지 두번 있었다. 1895년에 公布된 小學校 敎則大綱²⁸⁾ 第6條에 있는 地理에 關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本國地理及 外國地理는 本國地理 及 外國地理의 大要를 授하야 愛國하는 精神을 養함을 要旨로함. 教科에 本國地理를 加하는 時에는 鄉土의 地形 方位 等과 兒童의 日常 目擊하는 事物에 就하야 端緒를 開하고 漸進하는 體로 本邦의 地形, 氣候와 著名한 都會와 人民의 生業 等의 概略을 授하고 地球의 形狀과 水陸의 分別과 其他 兒童의 理解하기 易하고 重要한 事項을 知케함이 可함. 高等科에는 本國地理는 前項에 準하야 稍詳히 授하고 다시 地球의 運動과 晝夜 四時의 原由를 解케 하고 外國地理는 大洋 大洲 五帶의 分別과 各大洲의 地形 氣候와 產物 人種과 及 日本, 支那와 本邦의 關係에 重要한 諸國地理의 概略을 授함. 地理를 授함이 實地의 觀察에 基하고 또 地球儀와 地圖 寫眞 等을 示하고 兒童의 熟知하는 事로 比較하야 確實한 知識을 得케 하고 또 尙상 歷史의 事實에 連絡케 함을 要함”

上記의 內容은 現在의 地理 教育課程에 比하여도 손색이 없는, 當時의 韓國社會에 先行하는 훌륭한 教育課程이다. 그중 주요한 것을 추려보면 첫째：地理教育을 通해서 愛國精神을 기르는 것이다. 둘째：學習順序를 鄉土로부터 시작하여, 本國·外國, 그리고 地球의 自然環境·人類生活 등으로 짜고 있다. 셋째：地理學習方法으로 實地觀察을 重視하였고, 地球儀·地圖·寫眞 등의 教具를 사용케 하였고 歷史와 關된지어 教育하도록 하고 있다.

當時에 制定된 學校官制에 대하여 주목할 점은 이

22) 官報：隆熙 3年 7月 5日, 光武 10年 學部令 第20號 改正

23) 官報：開國 504年 7月 19日 勅令 第145號

24) 官報：開國 504年 8月 1日 第126號

25) 官報：開國 505年 9月 30日 第175號, 學部告示 第4號

26) 官報：光武 10年 8月 27日, 勅令 第44號

27) 官報：光武 10年 8月 27日 學部令 第23號

28) 官報：開國 504年 8月 15日 學部令 第3號

들이 대체로 日本의 學制를 模倣하였다²⁹⁾는 것이다. 補助教材로 地球儀·地圖·寫眞 등의 사용을 云하나 當時의 韓國社會에서는 거의 不可能한 일이었다. 따라서 小學校 敎則大綱도 역시 어느 先進國의 것을 모방하였음이 틀림 없다. 이러한 先進的인 地理敎育課程이 日人들의 見解으로 1906년에 公布된 普通學校令 施行規則³⁰⁾에 의해서 改惡되고 만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地理：地球의 表面及 人類生活의 狀態에 關한 知識大略을 知得케 하며 本邦及 隣邦 國勢의 大要를 理會케 하고 漸進케 하여 世界의 地勢·氣候區劃·交通 등의 概略及 隣邦의 重要한 都會·産物·人情·風俗 등을 知게 할 이라. 實地 觀察에 基因케야 地球儀·地圖·標本과 寫眞 등을 示케야 確實한 知識을 得케 호되 特히 歷史及 理科의 敎授 事項과 聯絡케 할을 務호이다.

地理·歷史는 特別한 時間을 定치 아니하고 國語讀本에 所載한바로 敎授케 하니 故로 讀本中 此等 敎授 材料에 關하여는 特히 反復 丁寧히 說明케야 學徒의 記憶을 明確히 할을 務호이다”

上記의 內容은 小學校 校則大綱을 縮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부터 日人들의 韓民族에 대한 民族敎育의 抹殺이 노골적으로 들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地理와 歷史는 課程에는 있으나 實際敎授 時間에는 없고, 國語讀本의 內容中에서 地理의 人 的 것 을 地理敎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隆熙 3年(1909)에 普通學校令 施行規則³¹⁾이 다시 修正된다.

“地理·歷史는 地球의 表面及 人類生活의 狀態에 關한 知識의 一斑을 得케 하여 處世에 資케 하고 又 事歷의 要를 知게 하며 文化의 由來를 理會케 호므로써 要旨로호. 地理는 本邦의 地勢·氣候 區劃·都會·産物·交通 등과 並히 地球의 形狀·運動 등의 大要를 敎授케 하고 兼하여 隣邦의 地理大要及 世界의 地勢·氣候·人種 등의 概略을 知게 호이 可호. 歷史는 本國歷史로 하여 國初로부터 現時에 至하기 事의 事蹟의 大要를 敎授호이 可호. 地理 歷史를 敎授호에는 可及的 實地 觀察한 知識을 得케 호되 特히 修身, 理科의 敎授事項과 聯絡케 할을 要호.

地理·歷史는 特別한 時間을 定치 아니하고 國語讀本及 日語讀本의 內容으로 敎授케 되 此에 關한 讀本의 敎材에 就케야는 反復 丁寧히 說明케야 學徒의 記憶을 明確히 할을 務호이 可호”

上記의 內容은 日人들이 韓日合邦을 1年 앞두고 실제적으로 合邦후에 까지 실시하기 위한 敎育課程

으로써 地理와 歷史를 分離하지 않고 함께 記述한 것이다. 小學校의 敎育課程은 舊 韓國政府에서 처음 수립할때는 先進的인 것이었고 좋은 示範을 보여준 發이었으나 乙巳條約以後 日人들이 植民地統治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로 敎育에 見解하면서 地理敎育課程은 名目만 維持되고 實際地理 敎授時間은 없어졌다.

(3) 中等學校와 地理 敎育課程

光武 3年 4月 4日 學部令 第11號에 公布한 中學校 官制에 의하면, 同校의 目的은 “實業에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正德·利用 및 厚生의 道를 가르치고 中等 敎育의 보급을 도모한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修業年限은 7年으로, 처음 4年은 尋常科, 後의 3年은 高等科로 分하고 있다. 中學校의 入學年齡은 滿 17年 以上 25歲 以下로 規定하고 있다.

光武 10年(1906) 勅令 第42號로 高等學校令을 公布하고, 同年 學部令 第21號로 高等學校 施行規則을 公布하였다. 隆熙 3年(1909)에 高等學校令과 同 施行規則의 一部가 改正된다. 修業年限은 4年이고, 地方 實情에 따라 1年을 短縮할 수도 있다. 合邦후에는 高等學校가 廢止되고 高等普通學校로 된다. 高等學校에서는 週當時數 30時間中 地理는 每學年當 3時間이며 1學年에서 本國地理學, 2年에서 外國地理, 3學年에서 外國地理, 4學年에서 地文을 敎授하도록 되었다. 좀더 자세하게 地理 敎育課程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光武 4年(1900)에 公布된 中學校 規則³²⁾에 의하면 “中學校의 尋常科의 學科는 倫理·讀書·作文·歷史·地誌·算術·經濟·博物·物理·化學·圖畫·外國語·體操로 定호이다”라고 學科名이 羅列되었고 具體的 內容은 없었다.

光武 10年(1906) 高等學校令 施行規則³³⁾에는 다음과 같이 地理 敎育 課程을 定하고 있으며 極히 簡略하고 貧弱한 內容이다.

“地理：人生에 適當한 事項을 知게 호을 爲主하며 外國地理는 本邦과 重要 關係가 有한 事를 詳히 知고 地文은 本邦의 事實에 由호야 其 一般을 知게 호을 務호이다”

隆熙 3年(1909)에 改正된 高等學校令 施行規則³⁴⁾에 있는 內容은 다음과 같다.

“地理는 地球의 形狀·運動과 並히 地球表面及 人類生活의 狀態를 理會케 하여 處世上 必要한 事項을 知게 호

29) 吳天錫：前揭書 PP. 88~89

30) 官報：光武 10年 8月 27日 學部令 第23號

31) 官報：隆熙 3年 7月 9日 學部令 第6號

32) 官報：光武 4年 9月 30日 學部令 第12號

33) 官報：光武 10年 8月 27日 學部令 第21號

34) 官報：隆熙 3年 7月 5日 學部令 第4號

으며 要旨코흐.

地理는 本國地理와 並히 我國과 重要한 關係가 有한 諸外國地理의 大要를 教授하고 又는 地文의 一斑을 教授함이 可호

같은 해 公布된 高等女學校令 施行規則³⁵⁾에 있는 地理에 관한 내용도 上記의 것과 同一하다.

中等學校의 地理教育課程은 小學校의 것에 比하면 初創期부터 貧弱한 內容이었고, 또 乙巳條約 後에는 형식적인 地理教科 內容이었다.

한편 民間인들이 主動이 되어 學會를 組織하고 機關誌의 發刊도 활발하였다. 隆熙元年(1907) 10월에 張膺辰氏가 大極學報에 發表한 論文³⁶⁾中에 地理教科에 關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地理學은 地球 及 地球의 表面 狀態와 또 地球上 人類生活의 狀態를 明瞭히 하고 土地와 人類의 關係를 說明하는 學科라 即 地球가 天體에 對한 關係와 地球 表面上에 散在한 自然物 及其 現象과 地球上에 生植하는 生物(動物植物)과 人類生活의 狀態를 明示하고 또 此間에 存在한 因果의 關係를 說明하여 人的 教科와 物的 教科의 兩知識을 結合하는 教科라 本是 普通教育에서는 兒童의 生活는 本地方과 本國과 及 本國과 重要한 關係가 有한 隣國의 地理的 現象을 教授하는 거시니 此等 事實은 昔日 交通이 未開하여 鎖國 自居하던 時代에는 직접 生活上에 必要를 不感함으로 斯學의 歷史가 久遠함을 不洵하고 幼穉의 程度를 未免함다가 近世에 至하여 비로서 此를 教科에 編入하여스니 此는 近時 各種의 交通機關이 大開하여 遠隔의 地를 比隣과 如히 交通함에 至하여스미 此等 地理的 知識이 實際生活上에 必要를 生함으로 由함이라 特히 人類生活의 狀態는——히 自然의 狀態의 影響을 被치 않음이 無호니 人類生活을 理解코저하면 此等 互相의 關係를 攻究치 아니치 못호거시오 또 自己의 生活하는 地方 及 自國의 政治 經濟上의 狀態와 自國이 外國에 對한 地位 等은 此를 他地方 他國土의 比較對稱으로 因하여 明瞭함을 得호니 然則 地理教授는 國民 教育과 處世生活上에 重要한 價値한 有한 辨 아니라 理科研究上에 또 缺치 못호 教科니라”

上記의 內容은 地理學을 定義하고, 人間生活과 自然環境과의 因果關係를 설명하고 地理教育의 必要性和 地理的 지식의 실제 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當時로서는 地理教育에 對한 先進의 인 생각이라고 생각된다.

2. 地理 教科用 圖書 編纂

(1) 地理 教科用 圖書 編纂 經緯

35) 官報: 隆熙 3年 7月 5日 學部令 第2號

36) 張膺辰: 大極學報, 第14號 隆熙元年 PP. 30~31

37) 高橋濱吉: 朝鮮教育史考, 서울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1927, P. 165

38) 康允浩: “開化期의 學會 및 教育會 設立과 教科用 圖書 編纂의 經緯”

梨花女子大學校八十周年記念 論文集 1966, P. 9

39) 學部: 韓國教育(日文), 隆熙 3年 9月, P. 39

甲午更張 以前에는 學校의 程度, 目的, 種類에 맞는 적당한 教科書가 없었다. 따라서 論語, 孟子 等의 經書를 使用해 왔었지만 開國 504年 以來 教育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各種 教科用 圖書의 編纂 作業이 시작되었다.

新訂 尋常小學 卷末에 붙어 있는 “學部編輯局 開刊書籍定價表”를 보면 다음과 같은 教科用 圖書가 發刊되었음을 알 수 있다.

萬國地誌, 萬國略史(上), 朝鮮歷代史略(漢文, 3冊), 朝鮮歷史(3冊), 國民小學校讀本, 朝鮮略史, 朝鮮地誌, 小學讀本, 麗蒙彙編, 以惠記略, 輿載摘要, 地璣略論, 東輿地圖, 近易算術(上下) 簡易四則算術, 士民必知(漢文)

理科, 藝能 方面의 教科用 圖書가 없었으나 當時의 韓國事情으로는 小學校 教育에 必要한 教科用 圖書가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教科用 圖書는 國漢文 混用어였다. 17種의 學部 編輯局 開刊 教科用 圖書中에 萬國地誌를 비롯하여 6種의 地理教科用 圖書가 있었다는 것은 特記할 만하다. 여기에 收錄된 6種의 地理 教科用 圖書는 開化期의 地理 教科用 圖書 章에서 하나하나 說明하기로 한다. 이 의의 地理 教科用 圖書로 各級 學校에서 光武 9年까지 使用된 것으로는 光武 3年에 發行된 玄采 譯輯의 “大韓地誌”一, 二와 光武 6年에 發行된 “中等萬國地誌” 1, 2, 3卷이 있었다. 이 中等萬國地誌는 日語教官인 朱榮煥과 盧載淵이 譯하고 玄采가 校한 것이다.

光武 9年 以來 學政參與官 監督下에 委員을 두고 教科用 圖書 編纂에 着手하였고³⁷⁾ 光武 10年 3月 21日 統監府에서 開催된 施政改善 第2回 協議會에서 于先 教科用 圖書 編纂의 人的 構成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日人 俵孫一을 統監府 書記官으로 任命 東京高等師範學校 教授 三土忠造를 教科書 編纂 專擔官으로 任命하였다³⁸⁾

隆熙 3年 初頭까지 普通學校 教科用 圖書로 使用된 것으로는 修身書 4冊, 國語讀本 8冊, 日語讀本 8冊 漢文讀本 4冊 理科書 2冊 圖畫臨本 4冊, 習字帖 4冊, 算術書 4冊(教師用)等이다. 但 歷史, 地理에 關해서는 讀本의 內容에 따라서 教授한다는 規程때문에 따로 教科書를 編纂하지 않았다³⁹⁾. 普通學校 教育課程에 歷史와 地理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한 教科書가 編纂되지 않은 사실은 주목되

는 바 그 底意가 진정으로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의심된다⁴⁰⁾. 당시 編纂 책임자였던 三土忠造는 “한국에서도 修業年限을 6個年 혹은 8個年으로 延長될 때는 당연 地理, 歷史를 獨立시켜 가르치겠지만 今日은 될 수 있는대로 修業年限을 짧게하고 經費를 節約해서 多數의 學校를 세우고 教育을 普及하는 것을 第一의 急務로 한다. 今日과 같은 때는 經濟上으로 보나 教育上으로 보나 短少한 時間에 가르칠 學科는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해야 하는 것이다. 此 2科를 國語讀本의 內容으로 해서 가르치도록 한다⁴¹⁾.”라고 表面上의 理由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愚民教育 政策의 一面인 동시에 민족정신의 말살을 기도한 것이었다.

隆熙 3年 9月 私立 長洲普通學校 木佐出 教監의 報告⁴²⁾에 의하면 地理 歷史를 教授하는 特設의 時間이 없기 때문에 該科를 教授하지 않는데 誤解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 이것에 대하여는 國語及 口語의 教授에서 합쳐서 地理, 歷史의 教材를 說明하고 있다고 辯明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의 지리, 역사 교육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日人 編修官의 全權下에 進行된 教科用 圖書 編纂은 親日 內閣에 의하여 造作된 것이었으나 民間에서는 이러한 處事에 反對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⁴³⁾. 民間人에 의해서 著作된 地理 教科用 圖書는 光武 11年에 發行된 張志淵의 大韓新地誌 乾, 坤을 비롯하여 韓國地理 關係가 11種, 隆熙元년에 發行된 金鴻卿의 中等萬國新地誌를 비롯하여 萬國地志 關係가 7種 있다.

具滋鶴은 “論我國小學校 教科書⁴⁴⁾에서 日人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政府의 教科用 圖書에 對한 編纂上의 未備點을 다음과 같이 列舉하고 있다.

(1) 外國人에게 編纂을 依賴함은 不當한 處事다.

(2) 自國이 著述한 것을 使用하여야 愛國心을 鼓吹할 수 있다.

(3) 外國이 自國보다 優勢함을 말하는 것은 自國精神을 減縮시키는 處事다.

(4) 日語學習에 置重토록 함은 奴隸根性を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教科用 圖書 編纂에 民間인들이 主動이 되

었고, 『여러 學會 機關誌에 新學問을 소개하는 翻譯 및 執筆原稿를 掲載하고 있었다.

(2) 地理 教科用 圖書의 檢定 及 認可

開國 504年에 制定된 漢城師範學校 規則과 光武 33年에 公布된 中學校 規則에는 教科用 圖書 使用에 관한 規定이 없었다. 그러나 小學校令 第15條에 小學校의 教科用 圖書는 學部에서 編輯한 것 혹은 學部大臣의 檢定을 받은 것을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乙巳條約 締結 以前까지는 民間人의 著述 教科書가 별로 없었고, 教科書의 需要도 적어서 圖書 檢定規程이 없었다. 光武 10年에 統監府가 設置되고, 學制를 改革하는 各級 學校令이 制定 公布되었다. 各級 學校令에 教科用 圖書 使用에 關하여 規定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즉 學部에서 編纂한 것과 學部大臣의 檢定을 받은 圖書를 使用하고, 이러한 圖書가 없는 경우에는 學校長이 學部大臣의 認可를 받은 圖書에 限해서 使用토록 하고 있다.

隆熙 2年에 教科用 圖書 檢定 規程⁴⁵⁾을 公布했다 即 教科用 圖書의 著述者가 이것에 의해서 檢定을 받는 手續을 定해 놓은 것이다.

當時의 檢定 及 認可의 方針은 相當히 嚴重히 勵行되어 耶蘇敎의 聖書 即 新舊約 聖書까지도 審議하고 認可의 手續을 밟았다. 學部가 세운 檢定 及 認可의 基準은 다음과 같다⁴⁶⁾.

(1) 政治의 方面

a. 韓國과 日本과의 關係 및 兩國의 親交를 阻礙 又は 非難하는 일이 없는가?

b. 韓國의 國是에 違戾하여 秩序와 安寧을 害하고, 國民福을 無視하는 것과 같은 言說은 없는가?

c. 韓國의 固有한 國情에 달리하는 것과 같은 記事는 없는가?

d. 奇矯하고 誤謬에 빠진 愛國心을 鼓吹하는 일은 없는가?

e. 排日思想을 鼓吹하고 又は 特히 韓國人에게 日本人 및 其他 外國人에 對한 惡感情을 품게 하는 것과 같은 記事 또는 語調는 없는가?

(2) 社會의 方面

a. 淫雜 其他 風俗을 壞亂하는 것과 같은 言辭 及 記事는 없는가?

b. 社會主義 其他 社會의 平和를 害하는 것과 같은 記

40) 吳天錫：前揭書 P. 163

41) 高橋濱吉：前揭書 PP. 167~177

42) 學部學務局：學事狀況 報告 第6回要錄, 隆熙4年, PP. 9~10

43) 康允浩：前揭書 P. 10

44) 共修學報：第2號, 光武 11年 4日 PP. 10~20

45) 官報：隆熙 2年 9月 1日 學部令 第16號

46) 高橋濱吉：前揭書 PP. 178~180

事는 없는가?

- c. 荒唐無稽한 迷信에 속하는 것과 같은 記事는 없는가?

(3) 教育的 方面

- a. 記載 事項에 誤謬는 없는가?
b. 程度 分量 及 材料의 選擇이 教科書의 目的에 適應하였는가?
c. 通述方法이 適當한가?

이러한 規定이 發表되자 社會의 輿論은 비등하여 이는 親日 教育을 강요하려는 수단이라고 공격하는 소리가 높았다⁴⁷⁾. 教科用 圖書 檢定 規程이 公布된 以來 隆熙 4年 5月까지 教科用 圖書 檢定 出願 部數 117卷中 地理科用圖書는 20卷으로 首位를 占하고 이 중 認可部數 6卷, 不認可部數 5卷, 調査中인 것이 8卷으로 되어 있다⁴⁸⁾. 地理 教科書에 對한 檢定이 얼마나 까다로웠는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이미 檢定을 得한 圖書도 檢定을 無効로 하는 것도 있었다. 張志淵의 “大韓地誌”는 隆熙元年 9月 21日 學部 檢定을 得하였으나 隆熙 3年 1月 30日 學部 檢定이 無効라고 發表된다⁴⁹⁾.

民間에서는 이러한 處事에 對하여 露骨的인 非難과 反對를 나타냈다. 嵩陽山人은 “教科書 檢定에 關한 忠告⁵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近日 學部에서 教科書 檢定의 規定을 發布함은 一般 教科書의 種類를 善良 完全함을 揀야 均一케 할라는 意圖과 誰가 敢히 贊頌치 아니하리오 雖然이나 此에 야 近者 教育界의 輿論을 聞호 즉 缺點이 不無한 教科書를 著作한 者가 其 檢定함을 請願호면 許多의 歲月을 消磨호고 檢定의 期限이 杳然호야 畢竟 著作호야 自沮의 念이 崩케 호다하니 然則 是는 檢定의 規程으로써 著者를 制限코져 호이라 호는 論評을 未免호지라……”

當時 日人들의 속셈을 잘 表現한 글이다. 親日의 學部에서는 觀察使 會議 席上에서 民間人들의 反撥을 感知하고 行한 倭 學部次官의 訓示⁵¹⁾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私立學校에서 學部가 編纂한 것 又は 檢定을 받은 것 以外의 圖書를 使用코자 할때는 學部大臣의 使用認可를 받도록 되었으나 私立學校의 教科用 圖書에 往往 不適當하고 不適當한 것이 있다……. 더우기 教育的 基本이 되는 教科用 圖書가 現今의 國是에 反對하고 政治에 干與하는 것과 같은 文字를 記載하는 것은 教育的 本旨에 違背됨으로 여기에 대하여는 十分 嚴重한 取締을 必

要로 한다. 如何한 圖書도 認可하고 또 認可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教科用 圖書一覽表라는 印刷物을 配付해 두었으니 따라서 不適當한 教科用 圖書를 使用해서는 안되며 이것에 대한 取締을 洪코 寬漫히 해서는 안 된다……”

教科用 圖書一覽⁵²⁾에는 다음과 같이 5種으로 教科用 圖書를 分類하고 있다.

① 學部編纂教科用圖書

“私立學校에서 此種 圖書를 使用코자 호는 境遇에는 學部大臣의 認可를 要치 아니함”

普通學校 教科用 圖書로 10種을 들고 있으나 地理, 歷史에 關한 圖書는 없다.

② 學部檢定教科用圖書

私立學校에서 此種 圖書를 使用코자 호는 境遇에는 學部大臣의 認可를 要치 아니함.

私立初等과 高等學校用 教科用 圖書로 33種의 圖書를 檢定하고 있다. 이 중에 朴品東의 “初等本國地理”, 安鍾和의 “初等萬國地理大要”, 安鍾和의 “初等大韓地理”와 閔大雄의 “新撰地文學” 등의 4種의 地理에 關한 도서가 있다.

③ 學部認可教科用圖書

“左記 圖書는 私立學校에서 學部에 使用認可를 請願호者中 認可호 圖書요, 其 効力은 認可를 受호 學校에만 有한 者인 즉 他 私立學校가 此를 使用코자 호는 境遇에는 私立學校令 第6條 2項에 依호야 學部大臣의 認可를 受호이 可호”

認可한 私立學校의 初等科 高等學校用 教科用 圖書로 41教科에 343種의 圖書가 있다. 이 중에 地理 圖書가 14種, 地圖가 12種, 地文圖書가 2種 있다.

地理科用 圖書로는 安鍾和의 “初等大韓地誌”, 大同書觀의 “大韓地誌教科書”, 金鴻卿의 “中等萬國新地誌”, 鄭雲復의 “最新世界地理”, 國民教育會의 “初等地理教科書”, 學部の “萬國地誌”, 朱榮煥, 盧載淵의 “中等萬國地誌”, 黃潤德의 “萬國地理”, 陳熙星의 “新撰外國地誌”, 俞鈺兼의 “中等外國地理”, 宋憲奭의 “新訂中等萬國地誌”, 日本 文部省의 “小學地理”, 日本 金港堂의 “小學地理”, 日人 澁江保의 “萬國地理” 등이 다. 地文教科書는 尹泰榮의 “中等地文學”, 日人 山上萬次郎의 “近世地文學科書” 등이다.

④ 學部不認可教科用圖書

“從來 私立學校에서 學部에 使用를 請願호中 不認可호 圖書이니 此는 何學校던지 絶對的 使用함을 不許호”

70種의 圖書中 地理에 關한 不認可 圖書는 9種이

47) 吳天錫: 前揭書 P. 164

48) 高橋濱吉: 前揭書 PP. 174~179

49) 官報: 第4288號 隆熙 3年 1月 30日 土曜 廣告

50) 大韓協會會報: 第10號 隆熙 3年 2月 25日 PP. 5~6

51) 觀察使會議要錄(日文): 隆熙 3年 7月 17日~21日 52) 學部 編輯局: 教科用 圖書 一覽 隆熙 4年 7月 增補 第5版

다. 鄭寅琥의 “最新初等大韓地誌”와 “最新高等大韓地誌”, 玄采의 “大韓地誌”, 張志淵의 “大韓新地誌”, 金建中の “新編大韓地理”, 博文書館編輯部の “問答大韓新地誌”, 힐버트(紘法)의 “土民必知”, 丁茶山の “大韓疆域考”, 日人 佐藤傳藏의 “萬國新地誌” 등이다.

⑤ 檢定無效 及 檢定不許可 教科用 圖書

“檢定 無效의 圖書는 教科用 圖書檢定規程 附則第15條에 依하여 檢定無效로 된 者이고 使用함을 不得을 檢定不許可의 圖書는 教科用에 不適當함으로 教科用 圖書檢定 規程에 依하여 不許可의 者이니 使用함이 不可을” 檢定無效圖書 6種中에 張志淵의 “大韓新地誌”가 있고 不許可의 圖書 7種中에 鄭寅虎의 “最新高等大韓地誌”와 “最新初等大韓地誌”가 있다.

4. 開化期의 各種 地理 教科用 圖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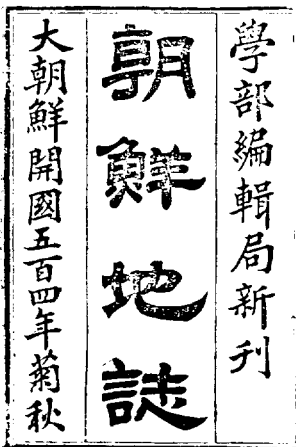
筆者는 앞에서 開化期에 刊行된 各種 地理 教科用 圖書의 編纂 經緯와 檢定 및 認可에 關하여 言及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開國 504年(1895)에서 隆熙 4年(1904) 사이에 官民間에서 發刊된 地理 教科用 圖書의 內容과 特色을 韓國地誌 教科書와 萬國 地誌 教科書 등으로 區分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1. 韓國地誌 教科用 圖書

(1) 朝鮮地誌(第2圖)

學部編輯局新刊, 韓紙 漢裝本 國漢文體, 木活字本, 開國 504年 菊秋發行 本文 50張 18cm×28cm



本書는 學部에서 編纂한 最初의 韓國地誌 教科書이다. 總論에 該當하는 部分에서 從來의 地理書 形式을 脫皮하려는 흔적이 보이니 在來의 輿地勝覽類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內容은 總論에 該當할 卷頭에서 韓國의 位置, 地形, 歷史, 地域 區分 等이 概括적으로 記述되어 있고 다시 京都, 宮殿, 廟社, 宮內, 府內閣, 中樞院, 內部, 外部, 軍部, 法部, 度支部, 學部, 農商工部, 警務廳의 位置와 沿革 및 機構에 關하여 略述하고 있다. 다시 漢城, 仁川二部, 忠州, 洪州, 公州 三府, 全州, 南原, 羅州 濟州, 四府, 晉州, 東萊, 大邱, 安東 四府, 江陵, 春川 二府, 開城, 海州 二府, 平壤, 義州, 江界 三府, 咸興, 甲山, 鏡城 三府 等이 元帳付田畝, 人口, 名勝, 土產, 人物 等으

第2圖 朝鮮地誌

로 區分되어 記述되었다.

로 區分되어 記述되었다.

地圖, 插畫, 目次, 序文이 없는 初步的인 地誌書이다. 本書의 敘述에 있어서는 主로 新增東國輿地勝覽과 增補東國文獻備考를 參酌한 듯하다.

總論에 該當하는 卷頭部分은 다음과 같다.

“朝鮮이 亞細亞洲 東端에 在하니 東南은 日本海를 面하고 서는 黃海를 臨하고 北은 鴨綠, 豆滿 二江이 遼東과 滿洲로 더부러 接壤하여 露清 二國에 隣이 되니 周回 一萬九百二十里라 北으로 慶興에서 부터 南으로 機長에 至하여 三千六百十五里로 東으로 機長에서 부터 海南에 至하여 一千八十里로……”

(2) 地璣略論

著編著 未詳, 韓紙, 漢裝本, 發行年度 未詳, 國文體(漢文註), 木活字本, 本文 20張, 19.6cm×30cm

本書는 「新訂 尋常小學」卷末에 붙어 있는 學部編輯局 開刊書籍 定價表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學部에서 初步的인 地理教科書로 發刊한 것 같다. 地圖, 插畫, 目次, 序文이 없다.

內容은 地球의 運動과 水陸分布, 朝鮮, 世界各國으로 되었다. 地理 全般에 걸쳐서 極히 簡略하게 記述한 地理書이다. 모든 地名 表記는 原音을 國文으로 쓰고 옆에 漢字로 註를 붙였다. 또 本文의 內容 構成은 全部 問答式으로 되었다. 몇가지 內容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問 道선동편 바다맞기엇던 나라히잇는뇨
朝鮮東偏

○答 일본국이 잇는니라
日本國

問 道선북편에잇던 나라히잇는뇨
朝鮮北偏

○答 아라사국이 잇는니라
俄羅斯國

問 道선서북간에 엇던 나라히잇는뇨
朝鮮西北間

○答 청국이 잇는니라
淸國

問 道선서남에와 동북에는 어디가되는뇨
朝鮮西南 東北

○答 태평양이 되는니라
太平洋

(以上 第3張)

問 인도국에 무슨 유명한강이 잇는뇨
印度國 有名 江

○答 잔지브란강이 잇스되 백성이 위하여 제스를
千支斯 百姓 祭祀
지내고 아히를 제물을 띠드러 그강에 넣는니라
兒孩 祭物 江

問 인도국에 인구수가 얼마가 되는뇨
印度國

○答 대강이백조인명되는니라
大綱二百兆人名

問 인도국백성의 품수가 네가지로논함이엇는뇨
印度國百姓 品數

○答 서로 혼인하지 아니하고 음식과 거처를 같이 하지
 婚姻 飲食 居處
 아니 혼느니라

(以上 第16張)

(3) 輿載撮要(全)

學部發刊, 韓紙 漢裝本, 木活字本, 漢文體, 發行年度未詳, 本文 83張, 17 cm×27.4 cm

原來 輿載撮要是 吳弘默編으로 癸巳年(1893年)에 10卷, 10冊⁵³⁾으로 發刊된 것으로 當時에는 비교적 科學的인 地理書에 속하였다. 目錄은 다음과 같다.

卷之第一 天文圖地球圖凡例, 經線緯線圖, 地球五帶圖, 地圓日月地圖, 地球分至圖, 地球圓日圖, 地球四季圖, 地球晝夜圖, 月輪盈缺圖, 地球潮汐圖, 日蝕月蝕總圖, 平圓地球全圖, 地球圖解, 地球論, 論洋洲, 萬國輿圖, 人望船行圖, 登高見遠圖, 天下大河比較長短圖, 天下大山比較長短圖, 天下五大洲方圖, 各國政教略說, 總論亞細亞洲五國—亞細亞洲圖, 亞細亞東部圖, 中國, 朝鮮, 日本, 暹羅, 波斯, 附屬地 歐羅巴十九國—歐羅巴洲圖, 俄羅斯, 奧地利 日耳曼, 丁抹, 瑞典挪威 英吉利, 荷蘭, 比利時, 瑞西, 法蘭西, 西班牙, 葡萄牙, 伊太利, 希臘, 蒙底尼, 寒爾維, 羅馬尼, 伯布里, 土耳其, 附屬地

亞非利加洲七國—埃及, 三給波爾, 南亞非利加共和國, 荷聯珠自由邦, 公額, 利比里亞, 摩洛哥, 附屬地 北亞米利加洲九國—海地, 三土民各, 美利堅, 墨士哥, 開都拉斯, 瓜他馬拉, 三薩哈多, 尼加拉加, 古修道理加, 附屬地 南亞米利加洲十國—南亞米利加洲國, 古倫比, 委內瑞拉, 巴西, 披拉乖, 烏拉乖, 亞然丁合衆國, 智利, 披里非, 秘魯厄瓜多, 附屬地

卷之第二 東國八城途里標, 題詠人姓氏, 朝鮮全圖建圖, 漢陽京城圖, 京都, 京城五部圖, 漢城府

卷之第三 京畿道三十八官

卷之第四 忠清道五十四官

卷之第五 全羅道五十六官

卷之第六 慶尙道四十官 卷之第七 慶尙道三十一官

卷之第八 江原道二十六官 卷之第九 平安道四十四官

卷之第十 黃海道二十三官 咸鏡道二十四官

上記의 “卷之第一” 記述된 天文學에 관한 부분은 “漢城旬報”에 나오는 것과 同一한 것이다.

學部에서는 癸巳年에 刊行된 吳弘默의 “輿載撮要”를 1冊으로 縮少하여 地理科用 圖書로 發刊하였다. 여기 插入된 地圖는 地球全圖(東半球, 西半球), 京畿道地圖, 忠清道地圖, 全羅道地圖, 慶尙道地圖, 江原道地圖, 黃海道地圖, 平安道地圖, 咸鏡道地圖等이다.

內容은 韓國에 關한 것은 輿地勝覽類를 벗어나지 못하나 外國에 關한 것으로는 比較的 새로운 것이 라 하겠다. 다음 몇 가지를 例로 들어 본다.

53) 國立圖書館 所藏. 筆寫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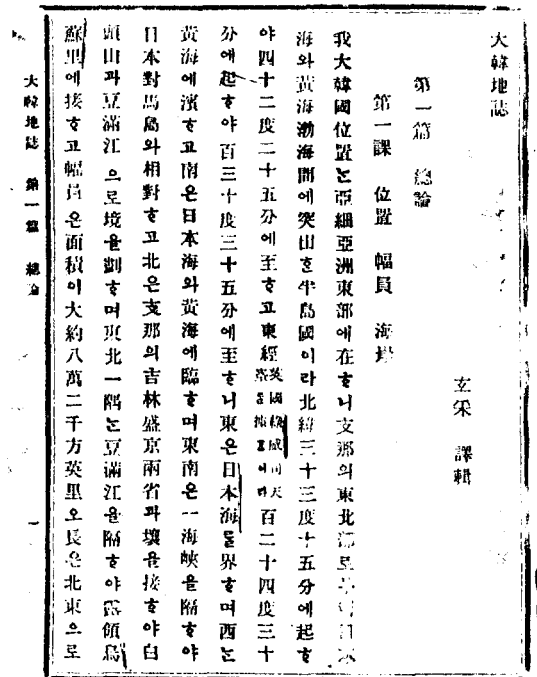
各國政教略說

“各國設政法 以修內治講 交際以通外交爲 不易之理然而 政治有三大權其設立法典一也其頒行政法二也 其審判訟獄 三也泰西政治家稱有立法權行政權司法權例如財務 決定租稅及增減制用 所謂立法權也徵收租稅及自爲制用所謂行政 權也例如軍務決定和戰及增減軍數所謂立法權也 自任和戰及徵募兵卒所謂行政權也至於司法權則專懲罪惡及 判決訴訟焉○各國政治自有異同不可以一例拘之然言乎 其體則不過三者君主專制由君主總裁 三大權自其臣下輔佐不准庶民 參議員政一也曰君臣同治君主與庶民共議政治分掌三大 權二也曰共和政治別無君主庶民推其一人爲 大統領限年變更迭與庶民共議政治三也”

上記 內容은 三權 즉 立法, 司法, 行政의 概念과 君主政治, 立憲君主政治, 共和政治 等을 說明한다.

本書는 外國地誌에 關한 部分이 17張(20.4%), 韓國地誌에 關한 部分이 66張(79.6%)으로 韓國에 比重을 많이 두고 있다. 그러나 韓國에 關한 內容은 輿地勝覽을 倣하고 있어서 새로운 것이 못된다. 즉 各道를 府, 牧, 郡, 縣으로 分하고 이것을 다시 位置, 官員, 郡名, 面, 戶, 結, 山川, 土產, 閑防으로 나누어 記述하고 있다. (第13圖)

(4) 大韓地誌 1, 2



第3圖 大韓地誌

玄采編輯, 洋紙, 漢裝本, 國漢文體, 光武 3年 12月 發行 (初版), 光武 9年 7月 再版發行, 發行兼印刷 未詳, 再版 博文社 編輯局長 李圭桓, 序 2面 凡例 2面, 目錄 2面, 一卷本文 128面, 二卷本文 138面, 姜璣跋 2面, 玄采跋 2面, 15 cm×22

本書는 從來의 地誌類와는 달리 第一編總論에서 韓國의 自然地理, 人文地理를 取扱한 最初의 地理

書이다. 文采의 跋文에 의하면 本書는 日本人들이 著作한 韓國地誌類와 東國輿地勝覽을 參考로 하여 編輯되었다.

日인들이 光武 3年 以前에 著作한 韓國地誌 圖書⁵⁴⁾中에서 主로 松本仁吉의 “朝鮮地誌要略”과 小松運의 “朝鮮八道誌”를 參考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

“北緯三十三度十五分에 起키야 四十二度二十五分에 至키 英國綠威司天 合是據홀이라 百二十四度三十分에 起키야 百三十三度三十五分에 至키 東은 日本海를 界키며 西는 黃海에 臨키고 南은 日本海와 黃海에 臨키며 東南은 一海峽을 隔키야 日本對馬島와 相對키고 北은 支那의 吉林 盛京 兩省과 壤을 接키야 …”(P. 1. 第1課, 位置, 幅員, 海岸中에서)

“……北緯三十三度十五分ヨリ起リ 四十二度 二十五分ニ 盡キ 東經 綠威司天 百廿四度十分ニ 起リ 百三十三度三十五分ニ 盡ク 東ハ 日本海ニ 沈シ 西ヨリ 南ニ 至ッテ 黃海ニ 濱シ 東南ハ 我對馬島ト 遙ニ 海水ヲ 隔テテ 相望シ 北ハ 支那 吉林 盛京ト 交際シ …”(朝鮮八道誌 P. 1 位置에서)

“……河流의 最大者는 咸鏡道 豆滿江과 平安道 鴨綠江 大東江 清川江과 京畿道 漢江 臨津江과 忠清道 錦江과 慶尙道 洛東江과 全羅道 蟾津江等이 니 豆滿江은 源을 白頭山東에서 發키야 東北으로 流키야 咸鏡道 穩城에 至키고 …”(P. 3~4 第2課 地勢, 地質에서)

“……河流ノ 最大ナルモノハ 咸鏡道ノ 豆滿, 平安道ノ 鴨綠, 大同, 京畿道ノ 臨津漢江, 忠清道ノ 錦江, 慶尙道ノ 洛東, 全羅道ノ 蟾津ノ 諸川ナリトス. 豆滿江ハ 源ヲ 白頭山ニ 發シ 東北流シテ 咸鏡道 穩城ノ 北ヨリ …”(朝鮮地誌要略 P. 3 河流에서)

이 밖에도 많은 部分을 對照할 수 있으나 省略한다. 本書의 著者는 總論部分은 朝鮮地誌要略을 많이 參考하고 地方誌部分은 朝鮮八道誌를 많이 參考하였다. 그리고 日人의 記述內容이 틀린 것은 筆者가 많이 修正을 加하였다.

初版과 再版을 比較해 보면 內容은 같으나 字句의 修正이 많이 加해졌다. 한 가지 例를 들면 初版에서는 面積을 大略萬四千方里라고 하였으나 再版에서는 大略 萬二千方英里로 修正된다.

內容은 總14編으로 되었고 第1編 總論에서 位置, 幅員, 海岸, 地勢, 地質, 氣候, 物產, 人情, 風俗, 沿革, 政體區劃 등으로 區分하여 簡略하게 記述하고 있다. 第2編에서 第13編까지 13道를 位置, 地勢, 沿革, 山脈, 河流, 海灣, 島嶼, 都會, 勝地, 府郡位置, 古號, 坊面, 戶, 結, 土產 등으로 나누어 記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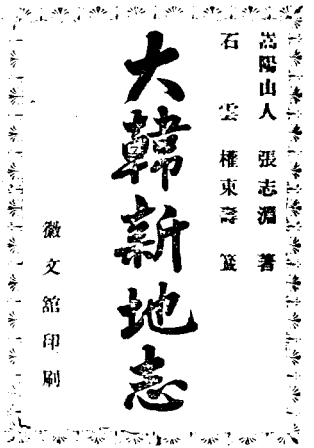
跋文에 의하면 本書는 小學童子課習地誌의 目的

으로 編纂되었으므로 初學者들이 利用하기에 便利하게 序文 다음에다 凡例라 하여 地理術語를 解說하고 있다.

(5) 大韓新地誌 乾, 坤(第4圖)

張志淵著 洋紙, 漢裝本, 國漢文體, 光武 11年 6月 15日 發行, 隆熙 2年 12月 15日 再版發行, 發行者 南章熙, 印刷所 徽文館, 南廷哲 序2面, 張志淵 序4面, 目次 4面. 上卷 本文 164面, 下卷 140面, 附錄 48面, 15cm×22cm.

本書는 開國 504年 以來 地理的 內容을 科學的으로 具備한 本格的인 地誌冊이다. 內容을 보면 第一編 地文



第4圖 大韓新地誌

地理에 名義, 位置, 境界, 廣袤, 沿革, 海岸線, 地勢, 山嶽, 水誌, 潮流, 氣候, 生産物 등 12章이 있다.

第二編 人文地理에는 人種, 族制, 言語及 文字, 風俗及 性質, 家屋, 衣服及 飲食, 宗教, 戶口, 皇室及 政體, 財政, 兵制, 教育, 貨幣, 產業, 交通 등 15章이 있다. 第三編에 13道를 位置, 境界, 沿革, 地勢, 山嶺, 河流, 海灣, 都會勝地 등으로 나누어 記述하고 있다. 附錄 第一章에 各郡 沿革及 距里方面結戶境界表, 第二章에 道里表가 있다.

本書는 隆熙元年 9月 21日에 學部檢定을 得하였으나 隆熙 3年 1月 20日에 檢定 無効를 當하게 된다. 그리고 本書는 當時에 需要가 많아서 發行된지 1年 6個月만에 再版 發行되었다.

著者의 序文 中에 “……迨此今日 吾人之最宜汲汲講究者 顯不在地理之切急乎 泰西學士之言 曰地理之學不興 愛國之心不生……” 즉 地理學을 通해서 愛國心을 기르려고 하였다. 따라서 本書에는 곳곳에서 愛國心을 鼓吹하고 있다.

“……本海岸의 最西端에 右水營岬과 珍島가 在키야 海峽間에 處키니 壬辰亂에 忠武公 李舜臣이 日本艦艇을 戰滅키던 碧波亭이 有키야……”(卷之一, 第一編 地文地理 第六章 海岸線 PP. 19~20)

“……貧富窮通을 親族師友에 依持키야 自立自主心이 鮮키니 此는 皆家族社會의 主義에 基因홀이라. 如今競爭時

- | | |
|-----------------|------------------|
| 54) 坂根達郎編: 鮮朝地誌 | 大阪 (明治 13年) 1880 |
| 關根錄三郎: 鮮朝國誌 | 東京 (明治 16年) 1883 |
| 宇津木貞夫: 鷄林地誌 | 東京 (明治 16年) 1883 |
| 小松 運: 鮮朝八道誌 | 東京 (明治 20年) 1887 |
| 足立栗園: 鮮朝誌 | 東京 (明治 27年) 1894 |
| 大田才次郎: 新撰鮮朝地誌 | 東京 (明治 27年) 1894 |
| 松本仁吉: 鮮朝地誌要略 | 大阪 (明治 27年) 1894 |

代에 在하는 此性質慣習을 排除하고 奮發心, 獨立心, 愛國心으로 抱抗力, 勤勞力, 活動力을 養成함이 第一國民의 主義가 될지르다”

(卷之一 第一編 人文地理 第四章 風俗及性質 PP.49-50)

著者는 地文地理와 人文地理 部分에서 日人 田淵友彦의 “韓國新地理”⁵⁵⁾를 參考한 흔적이 보인다.

(6) 新編大韓地理

金建中譯述, 洋紙, 漢裝本, 國漢文體, 光武 11年 7月 12日 發行. 發行所 普成館, 李承燾 序2面 目錄4面 本文 168面 15cm×22cm

本書는 日人 田淵友彦著 “韓國新地理”를 抄譯한 것이다.

內容은 第一編 地文地理, 第二編 人文地理, 第三編 地方誌로 나누어 記述하고 있으나 內容은 “韓國新地理”와 같다. 譯者는 直譯을 避하고 있다. 日本海를 朝鮮海라 고쳐서 韓國의 自主性을 살리려고 하였으나 統一을 期하지는 못하였다. 冊名에 “地理”라는 말을 最初로 使用한 地誌書이다. 그리고 譯者는 必要한 部分만 뽑아서 簡略하게 엮어 놓았다.

“韓國의 東海岸은 潮汐의 出入하는 差가 甚少하니 西海岸에는 大히야 京畿道 仁川 附近에는 其差異가 三十尺에 及키니故로 退潮時에는 數里의 泥를 見키며 南下하면 漸少히야 忠清南道의 淺水灣은 其差가 二十六尺餘가 되며 全羅道 西部 木浦地方에 至키면 十四尺餘가 되며 南海岸 釜山에 至키면 五尺에 不滿하며 東海岸 元山灣은 僅히 一尺五寸에 不過키니라”

(第一編 地文地理 第十章 潮汐)

“韓國의 東海岸은 潮汐干滿의 差甚だ甚少と 雖西海岸に 於ては甚だ大にして 京畿道 仁川附近の如き 其差異三十尺に 及び 退潮時には 一目數里泥を 見て水を見ず. 此地方を以て干滿の差 最も大なる所となす. 南下するに隨つて 漸く少く 忠清南道淺水灣にては其差 二十六尺餘となり 全羅の西部木浦地方に至れば十四尺餘 南海岸の釜山に至れば五尺に滿たず. 東海岸に 於ては元山滿の如き僅に一尺五寸に 過ぎず”

(第一編 地文地理 第十一章 潮汐 P. 57)

(7) 初等大韓地誌(全)

安鍾和, 柳瑾著, 洋紙 漢裝本, 國漢文體 隆熙元年 9月 10日發行. 隆熙 2年 10月 10日 再版發行. 廣學書舖發行 徵文館 印刷. 序(安鍾和) 2面 大韓全圖 1枚(縮尺 350萬分之1), 目次2面 本文 54面, 15cm×22cm

本書 以後의 韓國地理 教科用 圖書는 內容의 質과 量에 있어서 以前의 것보다 貧弱하게 된다. 本書의 內容은 第1課에서 第8課까지 位置境界, 沿革, 地勢, 名山大川, 氣候, 物産, 海岸線, 潮汐等 自然地理의 分野이고 第9課에서 第19課까지는 宗教, 貨幣

産業, 都會勝地, 入種, 族制, 言語文字, 家屋衣服, 皇室政體, 戶口租稅 等の 人文地理 分野이고 第20課에서 13道의 郡名이라하여 간단하게 地方誌를 記述하였다.

內容의 一部를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地方은 東西南 三面이 海를 沿호 半島國인 故로 海岸線 延長이 一萬八千餘里에 達키니 咸鏡南北道와 江原道 及 慶尙北道의 東部一部는 滄海를 面히야 東海이라키며 慶尙南道와 全羅南道의 南方一部는 南海岸이라키며 平安, 黃海, 京畿道와 全羅北道 等地의 西方一部는 黃海를 面히야 西海岸이라 키니라”

(第7課 海岸線 P. 10)

(8) 中等大韓地誌

元泳義口述, 洋紙, 漢裝本, 國漢文體, 隆熙 2年發行. 目錄 3張 本文 171張(1卷 61張, 2卷 110張), 15cm×21.5cm

本書는 學部의 檢定 또는 認可를 받지 않은 地理 教科用 圖書이며 活字印刷가 아니고 謄寫한 冊이다. 外表紙에는 “鮮志”라 되었고 內表紙에는 “성일기록”이라 하여 韓國地理書임을 表示하고 있다.

內容은 張志淵의 大韓新地誌, 金建中譯의 新編大韓地理와 大同小異하다. 즉 第1編 地文地理는, 第1章에서 第11章까지에 位置, 境界, 廣袤, 海岸線 地勢, 山經, 水經, 嶽鎮海濱, 潮汐, 氣候, 生産物 등이 있다. 第2編 人文地理는 第1章에서 第11章까지에 住民, 宗教, 教育, 政治, 法律, 兵制, 財政, 貨幣, 産業, 交通, 港市 등이 있다. 第3編 地方誌에서는 13道를 位置境界, 沿革, 都會勝地等으로 나누어 記述하고 있다.

內容의 一部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我韓에 13道의 名稱이 有키고 單純키 別名이 又 有키니 京畿道를 畿內로 忠清, 全羅, 慶尙 諸道를 三南으로, 江原道를 關東으로 黃海, 平安 諸道를 兩西로, 咸鏡道를 北關으로 稱키고, 此外에 分稱이 又 有키니 京畿道 漢北을 畿右로, 漢南을 畿左로, 忠清北道를 湖中으로, 同 南道를 湖西로, 全羅道를 湖南으로, 慶尙道를 嶺南 或 嶺南으로 江原道를 嶺東, 嶺西로, 黃海道를 海西로, 平安道를 西關으로 稱키고……”

(第3編 地方誌 總論)

(9) 大韓地誌教科書

大同書觀 編輯兼發行, 洋紙, 漢裝本, 隆熙 2年 6月 25日發行, 普文社印刷 15cm×22cm. 編輯大意 3面, 目次 9面, 本文 69面

本書는 高等小學 私立學校 地理 教科用 圖書로 編輯된 것이다.

內容은 第一章 世界大勢(地球의 表面), 第二章 本國大勢(位置와 境界, 沿海, 東海岸, 西海岸, 南海岸,

55) 田淵友彦: 韓國新地理. 東京. 博文館 1905

島嶼, 地勢, 北韓의 地勢, 南韓의 地勢), 第3章 山脈, 第4章 水系, 第5章 區域, 第6章 氣候, 第7章, 天產物, 第8章 住民, 第9章 交通, 第10章 產業, 第11章 各道 모두 69課로 編成되었다.

本書의 卷頭에 “編輯大意”가 있는데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郷土地理의 教程을 繼하여 本邦地理의 大概를 示하고 全國 學堂에서 共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風土와 名勝을 博學하여 兒童으로 하여금 四方旅行의 志를 舞動하게 하였다.

(3) 風景 閒情을 附하여 兒童의 興味를 增長하여 오래 記憶토록 하였다.

(4) 山誌는 日人 矢津昌永의 “韓國地理”를 採用하였다.

(5) 綴字法은 周時經氏의 窮究를 따르기로 했다.

內容에는 各 勝地의 說明과 日軍을 擊破한 義士 烈士의 記事가 많고 韓國의 主體性을 크게 내세우고 있다. 內容의 一部는 다음과 같다.

“우리 大韓帝國은 아시아 東部に 있으니 淸國의 滿洲로 붙어 黃海 大韓海 사이에 突出한 半島이라 大韓海에 臨하고 東南은 大韓海峽을 즈음차 日本 對馬島와 서로 對하고, 南은 大韓海에 面하고, 西는 黃海에 瀕하고, 北은 鴨綠江 豆滿江을 즈음차 淸國 滿洲와 서로 連하고, 東北은 豆滿江 下流를 즈음차 靑島와 서로 接하니라” (第2課 位置와 境界 P. 2)

(10) 最新初等大韓地誌

鄭寅琥 編輯兼發行, 李忠建參訂, 洋紙, 漢裝本, 國漢文體. 隆熙 3年 1月 5日 發行. 目次 2面. 本文 96面.

15cm×22cm. 地圖 挿畫—25圖

本書는 學部 不認可 圖書이고, 또 檢定 不許可 圖書로 되었다. 그러나 內容과 體制가 非教育的이어서가 아니고 日人들이 感情의으로 處理한 것이다. 즉 過去에 日本人들을 擊退시킨 記錄을 많이 담아서 民族精神을 鼓吹시키려고 한 內容이 많기 때문이다.

內容은 第1篇에서 第14篇까지에 總論, 京畿道, 忠淸北道, 忠淸南道, 全羅北道, 全羅南道, 慶尙北道, 慶尙南道, 黃海道, 平安南道, 平安北道, 江原道, 咸鏡南道, 咸鏡北道가 있다. 地圖는 大韓全圖를 비롯하여 各道 地圖와 主要都市 地圖 等 24個地圖가 있고 挿畫는 漢陽山脈을 비롯하여 主로 名勝地의 것이 25個 있다.

지금까지의 어느 教科用 圖書보다 地圖와 挿畫가 豊富하다. 몇가지 內容을 들면 다음과 같다.

漢江은 漢陽東方으로 入어야 南山을 抱아야 西로 鷲梁津에 至어야 鐵橋를 架設해야 京城에서 仁川과 釜山을 通호 火輪車가 晝夜로 往來하더라.

(第1篇 總論, 第6課 漢陽의 江流 PP. 6~7)

“……固城 南灣은 統制營을 設키앗던 處이니 忠武公 李舜臣이 此海面에서 日本大軍을 大破호 處이니 其中 閑山島 等地는 戰功이 尤烈호더라……”

(第八編 慶尙北道 第三課 江流와 海灣과 島嶼 P. 54)

(11) 最新高等大韓地誌

鄭寅琥, 編輯兼發行, 李忠健 參訂, 彭南周畫, 玄聖雲刻, 洋紙, 漢裝本, 國漢文體. 隆熙 3年 1月 5日 發行. 序 2面. 目錄 2面, 本文 143面. 15cm×22cm

本書도 역시 學部 不認可 및 檢定 不許可의 圖書이다.

內容은 第一編에 總論(位置와 幅圓, 定都漢陽, 漢陽의 山脈, 漢陽의 江流, 全國의 山脈, 全國의 江流, 氣候와 物產, 上古沿革, 中古沿革, 近古沿革, 宗教와 政體), 第二篇에서 第14篇까지는 13道를 位置境界와 地勢, 山脈, 江流, 港口, 海灣과 島嶼, 都會, 勝地 等으로 區分하여 記述하고 있다.

地圖는 大韓全圖, 漢陽全圖를 비롯하여 23個地圖이고 挿畫는 漢陽의 山脈, 漢江鐵橋輪車圖를 비롯하여 44個圖이다. 地圖의 內容은 全國 各道 地圖, 都市地圖이고 挿畫는 主로 名勝地의 것이다.

卷首에 隆熙 2年 12月 15日 字 鳳谷 安 席의 序가 있는데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地理는 人的生活와 物的 現象의 兩知識을 結合한 學科이고, 國民教育과 處世生活의 關係가 重大한 者

(2) 近世에 至하여 地理를 教科에 編入하니 韓國教育이 漸次 發達됨을 贊賀한다.

(3) 教授 程度에 對照하니 高等 小學에 適要하다 內容의 一部를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漢陽은 我太祖 高皇帝 御坐 定都호신 處이라 北關은 景福宮이오 東關은 昌慶宮과 昌德宮이니 今에 大皇帝 御坐 御臨호신 處이오 西關은 崇政殿이오 또 眞眞에 慶運宮이 有하니 今에 太皇帝 御坐 御臨호신 處이니 城은 背에 石으로 築호고 八門을 建호얏스니 周圍가 四十里오 五部內, 四十九坊에 四萬三千戶와 二十萬 人口가 住호며 十部 衙門과 各社會와 各學校는 前後에 排列호고 物貨가 四方으로 雲集호고 商店이 櫛比호니 帝王의 萬年基地라 光武元年到 國號를 大韓이라호고 全國의 區域을 十三道로 定호니라”

(第一編 總論, 第二課 定都漢陽 PP. 2~4)

(12) 初等本國地理

朴品東著, 洋紙, 漢裝本, 國漢文體, 隆熙 3年 10月 10日 發行. 發行所 同文館, 凡例 3面, 目次 2面(卷一), 目次 2面(卷二), 本文 卷一 54面, 本文 卷二 50面, 15cm×22cm

本書는 學部 檢定圖書이나 內容은 極히 簡略하고 日人들이 싫어하는 內容은 記載하지 않고 있다. 大韓全圖와 漢城地圖와 重要港口地圖 等 10個地圖가

있고 插畫는 2個圖가 있다.

內容은 總論, 漢城, 京畿, 忠淸北道, 忠淸南道, 全羅北道, 全羅南道, 慶尙北道, 慶尙南道, 黃海道, 平安南道, 平安北道, 江原道, 咸鏡北道, 咸鏡南道 등으로 나누어 있다.

各道를 다시 位置, 山岳, 江河, 都會勝地 등으로 나누어 記述하고 있다. 他書에서 볼 수 없는 特色은 漢字에다 한글 讀音을 달아 놓았고 띄어쓰기를 한 점이다.

강하
「江河」

“강하 전국地세 서남 더하 강하
“江河는 全國地勢가 西南이 低下함으로 江河도
다세 地勢를 사러서 흐르니 그 中에 漢城의 漢江
경상남북도 낙동강 평안북도 압록강
과 慶尙南北道の 洛東江과 平安北道の 鴨綠江과
평안남도 대동강 함경북도 두만강
平安南道の 大同江과 咸鏡北道の 豆滿江이 가장
크니라”

(第一編 總論, 江河 PP. 4~5)

(13) 初等大韓地理

安鍾和 著, 洋紙, 洋裝本 國漢文體, 隆熙 4年 3月 15日 發行. 廣德書館 發行, 序 1面, 目次 3面, 本文 70面 15cm×22cm

本書는 私立學校 地理科 初等教育 學徒用으로 隆熙 3年 12月 1日 學部 檢定을 얻었다. 本書의 構成은 第一課에서 第24課까지의 地球 位置境界 及 面積, 地勢, 名山大川, 港灣島嶼, 潮汐, 氣候, 物產, 都會勝地, 沿革, 人種, 言語文字, 衣服, 家屋, 族制, 戶口, 輸出入 及 租稅, 教育, 宗教, 皇室 及 政體, 地方制度, 貨幣, 金融 貿易 及 殖產, 交通 등으로 되었다.

本書는 地方誌에 關한 것이 없고, 人文地理書로 編輯되었다.

地圖는 없으나 插畫로 무궁화와 가자미 2個圖가 있다. 文章이 簡潔하고 要領있게 되었다.

“大韓의 地形은 東西南三面이 海를 洽한 半島國인 故로 海岸線은 實測이 姑無하나 其距離가 極長하나 咸鏡南北道와 江原道와 及 慶尙北道の 東方一部는 滄海를 面하여 東海岸이라 하며 慶尙南道와 全羅南道の 南方一部는 南海岸이라 하며……”

(第五課 港灣島嶼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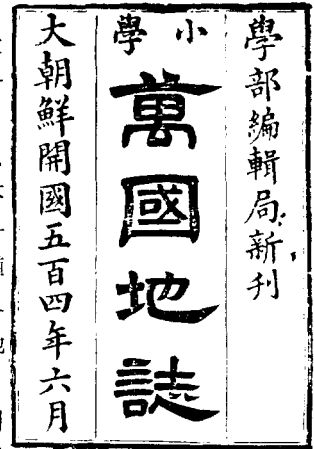
2. 萬國地誌 教科用 圖書

(1) 萬國地誌(第5圖)

學部編輯局 新刊 韓紙, 韓裝本 國漢文體, 木活字本, 開國 504年 6月 發行. 序 2張, 目次 5張, 本文 84張

18cm×28cm

本書는 學部에서 編纂한 最初의 地理科用 萬國地誌教科書이다. 本圖書는 小學校令이 公布 되기 1個月前에 發行되었는데 이는 當時 學部에서 教科用圖書 編纂事業을 各級 學校令 公布 前에 着手하였음을 알 수 있다. 本書 編纂에 日本人 補佐員 高見龜氏와 學部 編輯局長 李庚植이 參與하였다. 그리고 本書는 어느 外國의 地理書를 譯하였다.⁵⁶⁾



內容 構成은 總論에서 地理學 術語에 對한

解說이 있고, 第 1 篇에

第 5 圖 小學萬國地誌

亞細亞洲 16國 (朝鮮, 日本, 支那, 亞細亞魯西亞, 西土耳其斯坦, 亞細亞土耳其, 亞利伯, 波斯, 阿富汗, 皮路其斯坦, 印度, 緬甸, 暹羅, 佛領交趾, 東溝塞, 安南), 第 2 篇에 亞弗利加洲 8國 (土耳其管轄, 英國領, 佛國領, 日耳曼領, 葡國領, 西班牙領, 獨立諸邦 獨立地方), 第 3 編 歐羅巴洲 18國 (弗列顛諸島, 瑞典, 諾威, 丁抹, 荷蘭, 白耳義, 佛蘭西, 西班牙, 葡萄牙, 瑞西, 伊太利, 土耳其, 羅馬尼亞, 塞爾維亞, 門斗尼骨, 希臘, 靈西亞, 日耳曼, 奧地利), 第 4 編 北亞米利加洲, 11國 (哥里蘭, 加奈太, 新著大島, 北米合衆國 墨西哥, 英領閩都拉斯, 瓜地馬拉, 閩都拉斯, 三薩瓦多 尼加拉瓜, 哥斯德里加), 第 5 篇 南亞米利加洲 11國 (哥倫比亞, 委內瑞拉, 巴西, 幾亞那, 厄瓜多, 秘露, 玻里比亞, 智利, 알젠틴共和國, 巴拉圭, 烏兒圭, 호글난드 諸島), 第 6 篇 阿西亞尼亞洲 (馬來羣島, 濠太利亞羣島, 波里尼西亞 羣島) 등이 있다.

用語 中에 灣과 曲海가 있는데 이는 Gulf 와 Bay 의 譯語이다. 또 海峽과 海盆이 있는데 이는 Strait 와 Channel 을 區別하여 使用한 것이다.

本書는 當時 朝鮮地誌와 함께 地理教育에 重要的 役割을 했다. 地圖, 插畫가 하나도 없다.

本書가 後에 鉛活字本으로 同一한 內容의 冊이 發行되었다. 序文도 없고, 發行所와 印刷 年度가 없다.

(2) 中等萬國地誌 1, 2, 3 卷

朱榮煥, 盧載淵譯, 洋紙, 漢裝本, 國漢文體, 光武 6年 3月 學部編輯局新刊. 卷 1 序 2面, 凡例 4面, 目次 4面, 本文 230 面, 卷 2 目次 2面 本文 182面, 卷 3 目次 2面, 218面, 跋 2面, 15cm×23cm

本書는 序文에 의하면 前에 學部에서 編纂한 萬

56) 萬國地誌 序文中에서

國地誌의 內容이 未備하여 日語敎官 朱榮煥과 盧載淵에게 日人 矢津昌永의 萬國地誌를 翻譯하도록 하여 學部에서 發刊한 圖書이다. 57) 光武 3年에 發行된 玄采 編輯 大韓地誌와 함께 오랫동안 重要한 地理 敎科用 圖書였다. 譯者는 翻譯時에 留意하였던 點을 凡例에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1. 此書의 人名과 地名은 國漢文으로 譯出하고 國文은 五號 小字를 用하여 解釋키 便利케 하였더니 但 字形이 極히 細少하여 小註와 同하니 讀者는 留意할 지이다.
1. 又 人名과 地名에 英字를 兼用하였스니 此는 我音과 異同 處가 有함이 恐호이니 讀者는 專히 英字를 參考하라.
1. 各國 貨幣度量衡等의 數値는 本國制로 改革하여 本國과 比較키 容易케 하고.
1. 各國 貨幣는 本國 通貨로 交等호되 毫釐의 微細호者는 不許호노니 左表를 參照하라. (表省略一筆者註) 內容은 卷1에 總叙(地球와 天體, 地球의 運動, 水陸의 配置, 生業及 天產物, 社會, 人種, 宗教, 國家, 國體), 亞細亞洲(總論, 支那帝國, 日本帝國, 安南, 暹羅王國, 緬甸, 馬來半島, 印度, 土耳其斯坦, 阿富汗及 比路斯坦 波斯王國 亞刺比亞, 亞細亞 土耳其, 西伯利), 卷2에 歐羅巴洲(總論, 巴幹半島, 澳地利, 匈牙利, 日耳曼 丁抹, 瑞典, 那威, 露西亞, 英吉利, 和蘭, 白耳義, 佛蘭西, 瑞西, 西球牙, 葡萄牙, 伊太利, 希臘), 卷3에 亞弗利加洲(總論, 尼留諸國, 巴爾巴利諸國, 南部亞弗利加, 東部亞弗利加, 中部亞弗利加, 亞弗利加 諸島), 北亞米利加洲(總論 加奈他, 合衆國, 墨西其, 中央亞米利加, 西印度), 大洋洲 又 濠太利亞洲(總論, 멜나네시아, 馬來西亞, 폴니네시아, 미구로네시아), 南亞米利加洲(總論, 各國誌)

各大陸 總論은 位置, 境域, 海岸, 地勢, 氣候, 天產物, 人誌, 言語, 宗教, 敎育, 國體政體, 國勢等으로 區分하여 記述하고 各國誌는 位置, 地勢, 氣候, 生業產物, 通商貿易, 都邑, 國民, 人口, 政治, 軍制, 沿革時事等으로 地誌를 記述하고 있다. 그리고 外國 地名은 國漢文으로 쓰고, 羅馬字로 併記하였고 原音에 忠實을 期하였다.

(3) 中等萬國新地誌 (第 6圖)

金鴻卿編, 張志淵校閱, 洋紙, 漢裝本, 國漢文體, 隆熙 元年 11月 10日 發行, 序 8面, 凡例 2面, 目次 10面, 本文 卷 1 154面, 卷 2 157面, 附錄 12面, 跋 2面, 正誤表 2面, 15cm×22cm

編者는 凡例에 의하면 本書는 中等敎育을 行하는 學校의 敎科書로 編纂하였고, 英國百科全書(Ency-

clopaedia of Britanica), 日人 山田萬次郎의 新撰大

地誌의 明治 三十九年의 世界年鑑 及其他 地理書類를 參考하여 編纂된 것이다. 또 編者는 外國地名의 表記에 대하여 留意하고 있다. 즉 外國地名은 其國音을 따라서 읽는 것이 適當하나 支那, 日本의 地名은 我國 通例의 字音을 따르

中等萬國新地誌

第三章 歐羅巴洲 EUROPE

第一節 總論

譯同 張志淵
監譯 金鴻卿
編纂 校閱

位說: 歐羅巴洲는 東半球西北에 위치하여 亞細亞洲의 半島와 恰히
나니 其位置는 大約北緯三十六度에서 起하여 七十一度 餘에 至하고
東經線六十八度 및 西經線九度半에 至하며 北邊一帶는 北寒帶에
入하고 其他는 全北溫帶에 在하니라
境域: 北은 北水洋에 臨하며 西는 大西洋을 濱하며 南은 地中海와
黑海에 臨하고 高加索山脈으로 亞細亞洲을 接하며 東은 莫海우알히
中等萬國新地誌 歐羅巴洲 總論

第 6圖 中學萬國新地誌

도록 했고 其他 諸國의 地名은 國文으로 記載한 것을 읽고, 佛, 獨, 義, 比, 瑞西等及其 領地의 地名外에는 大개 英語에 따라서 譯하였고 밝히고 있으며 附錄으로 12面에 걸쳐서 外國地名을 羅馬字로 表記한 表를 만들어 놓았다. 本書는 張志淵의 大韓新地誌와 雙璧을 이룬 敎科用 圖書였다. 編者의 緒言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中等地理科의 敎育目的——地理學 普通知識을 授하여 思想의 範圍를 넓히고 處世上 實益을 得게 하는 것.
- (2) 外國地理를 敎授함에는 我國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諸國을 詳히 하고 其他는 略히 한다.
- (3) 吾輩는 國權을 挽回하고 國家를 隆昌케 함을 圖할 時는 我 青年으로 東洋地理를 必先 通曉케 한 후에 關係의 疎密을 따라 諸他國에 及하게 한다.

各國 地誌를 汎論, 地勢, 氣候, 產物, 人民, 貿易, 政治, 都府, 領地等으로 分하여 記述하고 있다.

(4) 萬國地理(上, 下)

黃潤德譯, 洋紙, 漢裝本, 國漢文體, 光武 11年 6月 7日 發行, 目錄 2面, 本文 102面, 15cm×22cm

本書는 普成館 翻譯員 黃潤德이 日書를 번역해서 만든 冊이다. 下卷도 光武 11年 7月 12日에 發刊되었다. 各國 地誌를 境域, 地勢, 區域, 海岸, 河川, 山脈, 氣候, 地方誌等으로 나누어, 記述하고 있다.

57) 編輯局舊有刊 萬國地誌而草履未備局長 李君聿和病之招延日語敎官數人譯日人矢津昌永所撰萬國地誌……閱泳詔序

外國地名表記는 日本式音을 그대로 國文으로 옮기고 있어 原音과 거리가 멀다. 地圖, 插畫는 없다. 一部 內容을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日本은 四面이 環海야 東은 渺茫호 北太平洋이나 北亞米利加洲에 向하고, 北은 千島海峽을 隔호야 가무더얏가 半島에 接호며 宗谷海, 太平洋 等 斜面이나라.”

(第二章 日本, 第一節 地文地理=境域 pp. 31~32)

日本 書籍을 參考한 증거로 몇가지 外國地名의 表記를 들어 본다. (英字 筆者註)

오고스쿠 海 : Sea of Okhotsk,

휘팅턴 羣島 : Philippines,

아루다이 : Altai Mts,

우라루 山脈 : Ural Mountains,

스에즈 海峽 : Suez,

베링구 海峽 : Bering Strait

(5) 中等外國地理 上, 下

銚鉦兼 編, 洋紙, 漢裝本, 國漢文體, 隆熙 2年 3月 10日 發行, 發行所未詳, 本文卷上 158面, 卷下 155面, 15cm×22cm 地圖와 插畫無

地誌書로서는 매우 優秀한 體裁와 內容을 갖춘 圖書이다.

第一編 總論(地理學, 天文地理, 地文地理, 人文地理)

第二編 에취아洲, 第三編 오시에니아洲, 第四編 유롭洲, 第五編 아프리카洲, 第六編 北아메리카洲, 第七編 南아메리카洲, 附 兩極地方 等の 體裁이다.

各國地誌를 位置, 海岸, 地勢, 氣候, 產物, 住民, 政治 交通 及 貿易, 都府, 領地 等으로 區分하여 記述하고 있다.

編者는 外國의 地名 表記를 모두 英語音으로 統一하였고 英字로 併記하여 놓았다.

編者는 地理學을 다음의 셋으로 區分하고 있다.

天文地理學 : 地球가 天體의 一員을 考究하여 其形狀, 大小, 位置, 運動 及 其結果, 經緯線 等に 關한 것을 論하는 것 혹은 數理地理學이라 稱한다.

地文地理學 : 地球表面의 自然한 區別과 關係 即 海洋 及 大洋의 區別과 關係를 論하며 地球表面 以內의 現象 即 岩石의 構造를 論하는 것, 地文學이라고도 한다.

人文地理學 : 地球를 人類의 住所라 認定하고, 其 住居하는 人民, 又 國家의 狀態를 論하는 것.

(6) 初等萬國地理大要

安鍾和 述, 元泳義 閱, 洋紙, 漢裝本, 國漢文體, 隆熙 3年 2月 22日 發行, 隆熙 3年 1月 29日 學部檢定, 徵文官 發行. 序 2面, 目次 8面, 本文 56面, 15cm×22cm

本書는 私立學校 初等 教育 萬國地理 教科用 圖書로 編纂되었다.

內容은 第1章 地球運行, 第2章 地面水陸, 第3章에서 第8章까지 亞細亞洲, 歐羅巴洲, 北亞米利加洲, 南亞米利加洲, 阿非利加洲 等이다.

章을 課로 分하여 各國 地誌를 簡略하게 前述하고 있다. 地圖 插畫는 하나도 없다. 地名의 表記는 全部 漢字로 되어 있다.

“萬國의 人民이 其國의 文明 等級을 因호야 4種으로 分호니 一은 文明國民이라 發達호는 性質이 有호야 百般의 學藝技術과 生活程度가 日日 進歩호이오, 二는 半開明國民이라 文明國에는 不及호나 文學과 農業製造호는 技術이 缺乏하지 아니 호이오, 三은 未開明國民이라 書籍과 教育이 無호고 衣食住 三件事에 一定호 規模가 無호이오, 四는 野蠻國民이라 性情이 兇暴호며 知識이 絶無호고 漁獵으로 生活호이다”

(第2章 地球水陸, 第4課 文明等級 pp. 6~7)

(7) 新訂中等萬國地圖

宋憲爽 編輯, 洋紙, 漢裝本, 國漢文體, 隆熙 4年 3月 30日 發行, 光東書局發行. 目次 1面, 本文 254面, 15cm×22cm

本書는 私立學校 高等科 地理 教科用 圖書로 編輯된 것이다. 7枚의 原色地圖(國家別, 彩色)가 있는데 이것은 韓國人에 의해서 刊行된 地理 教科用 圖書로서 最初의 것이다.

內容은 第1編 總論, 第2編 亞細亞洲, 第3編 歐羅巴洲, 第4編 亞非利加洲, 第5編 北亞米利加洲, 第6編 南亞米利加洲, 第7編 大洋洲 等이다.

各國 地誌를 位置, 疆域, 地勢, 天氣, 物產, 人民, 國政, 軍政, 地方誌 等으로 區分하여 記述하고 있다.

外國地名에는 英文으로 併記하고 國文音도 原音에 가깝게 表記하고 있다. 編者의 地理學에 關한 見解를 다음에 引用한다.

“地理學이라 稱은 大地一切의 學問을 研究호는 學이다. 此를 三類에 分호니 一은 算術地理호, 二는 地文地理호, 三은 政治地理라. 算術地理라 稱은 地球의 形體 大小를 論호이오. 地文地理라 稱은 水陸山川의 位置와 氣候生物의 異別을 論호이오, 政治地理라 稱은 郡國人民의 土產, 貿易과 戶口, 風俗 等の 事를 論호이다.

(第1編 總論. 1. 地理學 p. 1)

IV 結 論

1894年 甲午更張 以後 1910年 庚戌合邦까지의 地理 教育 課程은 前半期에는 內容이 充實하였다. 後半期 即 乙巳條約 後 統監府設置 以後부터는 日本人들의 韓民族의 民族 精神을 抹殺하려는 露骨의 인 干涉으로 因해서 師範學校와 小學校地理 教育 課程이 두 번 씩이나 改惡되고, 小學校에서는 地理 授業 時間마저 빼버리고 地理 授業을 國語讀本 時

間에 地理的인 內容으로 代置하였다.

地理 教科用 圖書가 最初로 出現된 것은 1889年 (?) Hulbert의 「스민필지」이다. 이로부터 1910年 까지 짧은 時間에 많은 地理 教科用 圖書가 官과 民의 編纂으로 나왔다. 그러나 日本人의 干涉을 받고, 日本人의 操縱下에 있었던 當時의 學部에서는 隆熙 2年에 教科用 圖書 檢定 規程을 公布하고 民族 精神을 鼓吹하는 地理 教科用 圖書에 대해서는 檢定을 不許하고 또 檢定을 無效로 하였으며 各級 學校에서도 使用을 不許하였다. 따라서 隆熙 2年 以後의 地理 教科用 圖書의 內容은 簡略해지고 粗雜해진다.

開化期에 있어서 地理 教科用 圖書의 編纂方法과 內容은 各樣 各色이었다. 韓國地誌의 教科用 圖書 內容의 變遷은 輿地勝覽類를 模倣해서 學部에서 編輯한 「朝鮮地誌」, 다음은 輿地勝覽類와 日書를 參考

해서 編輯한 玄采의 「大韓地誌」, 다음에 日人들의 近代의인 地誌 記述 方法과 日人들이 著述한 韓國地誌書를 參考하여 韓國 實情에 맞게 編輯한 張志淵의 「大韓新地誌」等 세 단계의 變遷 過程이 있었다. 萬國地誌 教科用 圖書는 Hulbert의 「스민필지」와 外書(주로 日書)를 臺本으로 해서 번역 내지 편집한 것들이었다. 金鴻卿의 「中等萬國新地誌」와 俞鉉兼의 「中等外國地理」는 外國地名 表記를 原音에 가깝게 國文으로 表示한 當時에 優秀한 外國地誌 圖書였다.

開化期 近代學校에서의 地理 教育 實施와 여기에 使用된 教科用 圖書는 當時에 開化하지 못한 國民들을 啓蒙시키고 開化시키는 데 큰 功獻을 하였다.

近代地理學이 韓國에 導入되는 過程은 좀더 구체적인 研究로 밝혀져야 할 問題로 남아 있다.

(群山 教育大學)

Geography Education in Korea during the Kaewha Period, 1895—1910

Bo-Wong Chang

Summary;

Kaewha Period in education begins with the adoption of public modern school system in Korea and ends in 1910, the year of Japanese Regime starts. Geography were taught in school before 1895 at Paejae School, the earliest mission school in Korea. However, geography course as an important school subject recognized widely after 1895. This paper is a study of curriculum and text books of geography during the period.

Before 1895, news paper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troducing modern concepts of geography

such as the round earth, continent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Geography courses taught in school after 1895 are *Geography of Korea, World Regional Geography, Commercial Geography, and Physiography*.

Geography were taught with an emphasis of national identity and world understanding. Text books were prepared by government or partly by private authors. Except for Geography of Korea most text books were translation or adaptation from foreign textbooks.